

日帝下 韓國新聞의 共產主義 受容에 관한 研究(其二)*

——韓鮮日報의 경우——

劉 載 天

I. 序 論

II. 各種結社와 組織運動에 대한 朝鮮日報의 思想的 立場

III. 民族主義와 社會主義

IV. 勞動運動과 農民運動

V. 마르크스思想과 社會主義의 受容

VI. 結 論

I. 序 論

1910년의 韓日合併 이후 日帝는 民族言論을 말살하고 憲兵警察制度를 도입하여 武斷統治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日帝는 武斷統治가 결코 현명한 植民統治術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강압대신 威유를 위한 文化統治로 식민정책을 전환한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하나로 齊藤實은 總督취임훈시를 통해 「……질서와 공안유지에 무방한 限」民間新聞을 허가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1919년 10월부터 신문발행의 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때 신청된 건

* 이 研究는 1986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수는 10 여건에 달했으나 총독부 당국은 1920년 1월 6일자로 「東亞日報」와 「朝鮮日報」 및 「時事新聞」의 3個紙만을 허가했다. 이 세 신문들 가운데서 「東亞日報」는 仁村 金性洙를 중심으로 한 民族진영이, 「朝鮮日報」는 親日團體였던 大正實業親睦會가, 그리고 「時事新聞」은 新日本主義를 표방하는 國民協會가 신청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경로로 발행허가를 받은 朝鮮日報는 親日經濟團體인 大正實業親睦會의 중견인물인 朝鮮商業銀行 頭取 趙鎭泰를 사장으로, 발행인(副社長)에 芮宗錫, 편집국장에 崔岡, 인쇄인에 徐晚淳 등의 진용으로 「新文明進步의 主義」를 社是로 내걸고 1920년 3월 5일에 창간호를 발행했다. 그러나 朝鮮日報는 창간후 出資된 자본이 적었고, 親日系 신문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웠으며, 停刊을 당하는 등 신문발행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朝鮮日報의 경영난이 극심해 졌을 때 古下 宋鎭禹와 의견충돌로 東亞日報를 사직하고 나왔던 李相協 일파가 資本主인 申錫雨 및 崔善益 등과 손을 맞잡고 당시 경영주였던 宋秉峻으로부터 朝鮮日報의 版權을 인수받게 된다. 이것은 1924년 9월 12일의 일이었다. 이로써 창간이래로 親日派의 손에 있었던 朝鮮日報가 비로서 民族진영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판권을 인수받은 申錫雨 등은 인격이 고매하고 덕망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식이 풍부한 民族의 師表를 사장으로 모신다는 원칙을 세운다.¹⁾ 창간후 약 4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의 뇌리에 새겨진 친일파 신문이라는 이미지를 하루 빨리 씻어내고 民族紙임을 강력하게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았던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月南 李商在先生이 9월 13일자로 朝鮮日報 사장에 취임했다.

이렇게 하여 民族紙로 새 출발하게 된 朝鮮日報 사장에 月南 李商在, 부사장에 申錫雨, 理事에 安在鴻·曹悞鉉·白寬洙·李相協·崔善益·金東成

1) 崔竣, 「월남선생의 언론활동」, 나라사랑 제 9집, 서울: 정음사, 1972, pp. 76~77.

·愼九範 등이 취임하고 편집진도 크게 보강, 정비하는 동시에 「朝鮮民衆의 新聞」이란 새로운 표어 아래 경영과 제작 양면에 혁신을 단행하여 일신된 면모를 갖추었다. 이 때의 제작진은 편집국장에게 閔泰瑗, 논설위원에게 安在鴻·金俊淵·辛日容, 편집부에 金松殷·李相喆·孫永極, 사회부에 金炯元·金達鎭·朴憲永·林元植·金丹治·鄭寅翼, 지방부에 洪眞裕·洪南杓, 공장장에 崔善益 등이었다.²⁾

民族紙로 새 출발한 朝鮮日報은 그러나 社會主義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신문으로 등장한다. 朝鮮日報가 社會主義 신문이라는 세평을 받게 되고, 社會主義의 색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東亞日報보다도 훨씬 가혹한 탄압을 총독부로부터 받았다.³⁾ 1924년부터 1931년까지를 日帝下의 한 국사상계에서 共產主義時代라고 부를 만큼 이 시기에 共產主義運動 및 共產主義理念의 도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상계의 풍토속에서 朝鮮日報가 社會主義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朝鮮日報와 新幹會와의 관계를 들 수 있겠다. 新幹會는 申錫雨·安在鴻등과 天道教 구파의 權東鎭·李種麟 등 左派民族主義者들이 火曜會의 洪命喜, 北風會의 金若水, 서울靑年會의 許貞淑 등 社會主義者들과 손을 잡고 「民族協同戰線」과 「民族單一黨」을 표방하고 대외적으로는 日本帝國主義의 붕괴와 대내적으로는 日本植民地로부터의 독립을 꾀한 조직이었다. 民族單一戰線을 내세운 新幹會의 주요 간부가 朝鮮日報의 간부들이었고 國內의 1백 38개 新幹會 支會도 대다수가 朝鮮日報의 支社와 支局을 주축으로 결성되었으며, 朝鮮日報의 기자는 新幹會에 入會해야만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만큼 新幹會와 朝鮮日報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다.⁴⁾

2) 「朝鮮日報 60年史」, 서울:朝鮮日報社, 1980, p. 130.

3) 崔竣, 「韓國新聞社」, 서울:一潮閣, 1972, p. 245, 金圭煥, 「日帝의 對韓言論·宣傳政策」, 서울:二友出版社, 1978, p. 234.

4) 朝鮮日報 60年史, pp. 414~415.

따라서 朝鮮日報은 新幹會의 기관지적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연히 新幹會內의 社會主義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朝鮮日報가 民族紙로 새 출발했던 1924년 9월 12일부터 方應謨가 사장에 취임한 1933년 7월 19일까지 朝鮮日報의 편집진 가운데 共產主義者들이 다수 종사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즉 이시기에 朝鮮日報의 편집진으로 종사했던 약 80여명 중 共產主義者들이 약 4분의 1이나 되었으며, 火曜會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洪增植은 영업부장이었다. 이때 朝鮮日報 편집진 가운데 共產主義者나 共產主義運動에 참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北風會의 徐範錫·孫永極, 火曜會의 洪命熹·洪眞裕·趙奎洙·曹奉岩, 新人同盟會의 辛日鎔, 高麗共產青年會의 朴憲永·林元根·金丹治(이들은 火曜會소속이었음), 프르부르 國內部の 金在鳳·洪南杓, 姜達永黨의 푸락찌 조직의 裴成龍, 朝鮮勞動共濟會의 徐承孝, 서울콩그름의 梁明, 朝鮮青年總同盟의 李吉用, 朝鮮共產黨 日本連絡部の 李爽, 北星會의 李如星, 同友會의 李益相, ML黨 사건의 金俊淵등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서 林元根·金丹治·孫永極·徐範錫·朴憲永·辛日鎔 등은 1925년 9월 8일자 사설 「朝鮮과 露國과의 政治的 關係」가 총독부당국에 의해 압수당하고 朝鮮日報가 정간처분을 당하자 신문의 복간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총독부의 사회주의자 추방요청을 신문사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해직당한다. 그러나 辛日鎔은 그뒤 복직되어 1932년 6월 21일부터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朝鮮日報의 主筆로 일했다.⁵⁾

이와같이 朝鮮日報의 편집진에 共產主義 신봉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朝鮮日報가 社會主義 신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신문을 제작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朝鮮日報 지면을 보면 신문이 마치 共產主義理念의 교과서와 같은 인상을 강하게 준다. 예컨대 「露國의 研究」(1923)라는 번역물은 10월혁명 이후의 소련사회를 긍정적인

5) 앞의 책, pp. 221~222, 東亞日報, 1925년 10월 26일자 광고.

관점에서 조감하는 글로 무려 160 여회나 연재되고 있으며, 「歐美各國의 社會運動」(1923)은 2개월, 「國際勞動運動史」(林癸未夫, 1923)는 3개월 반, 「新社會의 建設」(北澤新次郎, 1923~24)은 2개월 반, 「中産階級運命論」(山川均, 1924)이 1개월간이나 장기연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24년 9월 12일에 朝鮮日報가 民族紙로 새 출발한 이후 1925년 9월 8일자로 제3차정간을 당할 때까지 1년동안 압수된 기사와 논설 총 89건 가운데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것이 모두 15건으로 전체 압수건수의 약 17%에 이른다. 이들 압수된 15건의 기사와 논설의 제목을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⁶⁾

- △ 「極東青年大會提唱」(1924. 9. 16)
- △ 「統營의 無産者여 團結하라」(1924. 10. 19)
- △ 「青年運動問答」(1924. 11. 4)
- △ 「日本無産階級の 政治運動」(1924. 11. 21)
- △ 「外來資本과 朝鮮經濟界」(1924. 12. 4)
- △ 「共產宣傳事件 李大鼎 等の 첫 公判」(1925. 1. 18)
- △ 「赤露團의 宣言」(1925. 1. 20)
- △ 「레닌會見印象記(金丹治記, 1925. 1. 27)
- △ 「國際無産婦人데이」(1925. 3. 6)
- △ 「思想團體 朝鮮解放同盟」(1925. 4. 12)
- △ 「突然 赤旗를 뒤흔들고 無産者萬歲를 高唱」(1925. 4. 20)
- △ 「産業無政府主義」(1925. 7. 30)
- △ 「國際青年데이의 紀念講演과 標語」(1925. 9. 6)
- △ 「朝鮮과 露國과의 政治的 關係」(1925. 9. 8)

이상과 같은 朝鮮日報의 社會主義의 색채도 1928년경부터 시작된 총독 부당국의 思想犯 취체강화에 따라 점차 퇴색되어 갔고, 특히 1931년의 新幹會 해산과 日帝의 만주침략에 따른 한반도의 兵站基地化 정책에 의해 사

6) 朝鮮日報 60年史, pp. 401~402.

라지고 만다.

한편 이 시기에 共產主義運動이나 理念에 대해 기고했던 인물들 가운데는 張日煥(張赤波)·裴成龍·辛日鎔·鄭栢·金俊淵·朴元熙·卞熙琿·安光泉·梁明·李如星·金明植·權泰錫·崔益煥·康永源 등이 있었다. 또한 朝鮮日報에 소개된 日本人들의 저작을 보면 山川均·堺利彥·佐野學·河上肇와 같은 日本의 社會主義者들의 사상이 많이 소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글과 함께 堺利彥·山川均·荒畑寒村 등이 주관했던 「社會問題研究」誌에 게재된 논문들을 번역해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학생들도 많은 기고를 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의 朝鮮日報에 수용된 共產主義思想은 주로 日本을 통해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Ⅱ. 各種結社와 組織運動에 대한 朝鮮日報의 思想的 立場

朝鮮日報은 共產主義運動과 관련된 각종 결사체의 형성과 그들이 전개한 公산주의세력의 통일전선모색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보도하고 社說로써 사상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朝鮮日報의 사상적 位相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각 결사체의 형성과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통일전선모색을 위한 각종 대회에 대한 朝鮮日報의 사실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朝鮮勞農總同盟」에 대하여

朝鮮日報은 「朝鮮勞農總同盟」의 형성에 대해 無產大衆이 온갖 착취와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無產大衆의 團結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朝鮮日報은 우리 사회의 無產階級運動의 역사가 비록 일천하지만 都市의 勞動運動과 農村의 小作運動

이 이미 傳統的 資本主義에 沈淪된 社會의 心意에 큰 자극을 주었으나 운동세력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勞農總同盟」의 성립은 朝鮮의 無產大衆이 단결한 것으로 朝鮮勞動運動에 있어 영원히 기념할 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또한 朝鮮日報는 朝鮮에 극소수의 특권과 富를 가진 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오직 變태적인 예외에 지나지 않으며 朝鮮民衆은 모두 無產大衆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朝鮮에 民衆의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無產大衆의 운동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요지의 사실을 全文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⁷⁾

「앞스」는 共產黨宣言書에서 이러한 絶叫을 하였다 「萬國의 勞働者여! 團結하여라」고 이것은 世界無產大衆의 最後勝利가 오즉 團結에 있다는 것이다 弱者인 世界의 無產大衆은 長久한 歷史에 있어서 强者의 哲學, 法律, 政治, 道德, 宗教, 文藝等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열 마나 自己들이 偶像化하여 온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 갓搾取와 모든 束縛에서 自由의 解放을 얻어 들 武器가 오즉 그들의 弱한 힘을 합하는 데에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드디어 世界의 無產大衆은 團結의 喊聲을 질렀다 그리하여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無階級의 運動은 다 各各 團結의 旗幟下에서 動搖치 못할 權威있는 新勢力을 가지고 成熟하여 오는 것이 事實이다 이것이 絶對多數인 無產大衆의 解放이 次第로 成熟期에 이르는 아름다운 現象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리고 우리 社會의 無產階級運動을 도라볼세에 비록 時日이 尙淺하였 다 할지라도 都會의 勞働運動과 農村의 小作運動이 이미 傳統的 資本主義에 沈淪된 社會의 心意에 偉大한 刺戟을 與하여 온 것과 조그 運動의 勢力이 次第로 確大하여 온 것을 본다면 實로 超時間의 長足進歩의 感이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過去의 畚畚時間에 있어서 數多의 系統으로 난호아서 統一된 中心勢力이 形成되지 못하는 點으로 보아서는 적지 아니한 遺憾을 抱擁하는 同時에 모든 系統의 合한 團結이 가장 必要한 것은 世世로 늦게 든 바이러니 이제 「朝鮮勞農總同盟」이 成立되었 다 지나간 十七日로부터 今日까지 五日間을 亘하여 全朝鮮勞農團體의 代表는 遺漏없이 모였다 그리하여 滿場一致의 意見으로서 一大의 團結이 成立되었 다 아—이것은 朝鮮勞農運動의 永遠히 記憶할 날이다 朝鮮의 無產大衆이 團結한 날이다 이 勞農總同盟이라는 힘 있는 旗幟를 날이고 勞農總同盟이라는 嚴肅한 陣營을 整頓하고 勞働總同盟이라는 燦爛한 勳章을 단 無產大衆이 戰士의 向하는 곳에는 自由로운 解放이 잇슬 것을 우리는 믿는다

7) 朝鮮日報, 1924. 4. 21. 사실, “朝鮮勞農總同盟의 成立을 聞하고”

조우리의朝鮮民衆은모다無產大衆인것을우리는아려야할 것이다우리는다갓치束縛을受하여擄取를當한다 비록最少數の特權과富를가진者가있드라도이것은오죽變態的例外의事實이오一般的으로絶對多數인民衆은 모다無產大衆인同時에작구無產化하는民衆이다그럼으로우리의希望이엇지擄取와束縛을버서나서自由의解放을獲得함에잇지아니하리오朝鮮의民衆이모다 無產大衆인以上朝鮮에民衆의運動이있다할것가트면맛당히無產大衆의運動이단일수업슬것이다 이와갓튼意味에잇서서吾人은朝鮮의無產大衆의今回運動이갓朝鮮民衆의生活運動이라는것을躊躇치아니한다

이『朝鮮勞農總同盟』은일이團結의旗幟下에서同一한 步調를取하기로盟誓한것이다그럼으로今後의運動은반드시統一한中心勢力에 잇서서한이게進行할것을確信한다圓滿한會合을맞치고全國各團體의代表가 各自이重大한同盟의使命을가지고歸還하는今日에吾人은無量한歡喜의넉침을禁치못하는 同時에『朝鮮勞農總同盟』의將來에祝福을말지아니하며사라서代表諸氏의健全한努力에 잇서서無產大衆의全體가이團結의信條를奉信하게되기를聊히바라는바이다

2. 「朝鮮青年總同盟」의 창립에 대하여

1924년 4월 23일에 창립된 「朝鮮青年總同盟」에 대하여 朝鮮日報는 사설을 통해 青年民衆의 단결로 말미암아 청년운동의 통일을 도모하여 大衆本位인 新社會의 건설이 촉진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사설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⁸⁾

滿天下의朝鮮民衆이期待하든『朝鮮青年總同盟大會』가 豫定과갓치昨日前十二時부터京城中央青年會館內에서開催되었다 全朝鮮을通하야임이二百二十三個의團體가加盟되야重大한使命을奉載한二百二十三名의代表가 平和한空氣와多數한群衆의抱擁에서莊嚴한發會式을舉行하였다只今으로부터는 幾日間議事를進行하되얏다그럼으로吾人은이偉大한會合이意義깊은會合다시말하면우리의 青年民衆의團結로말미암아青年運動의統一을圖謀하야大衆本位인新社會를建設하고 사라서朝鮮民衆解放運動의先驅가될이會合을爲하야서는말은同情과넉치는 企待를다하야大會의完成과아울러前途의發展을祈禱하야말지아니한다…… 이제는기다리는大會가열이어衰하고弱한이社會의運命을救濟코저한다吾人은오죽이이總同盟發起團體의發表한綱領과 宣言을읽었다『大衆本位인社會의建設을期圖한다는것과, 朝鮮民衆解放運動의先驅者가되기를期한

8) 朝鮮日報, 1924. 4. 24. 사설, “朝鮮青年同盟創立大會에 對하여, 一오죽 偉大한 嚮望을 갖고요—”

다』는綱領으로서『아—此에 共鳴하여前進하려는各青年團體여어서加盟하여라團結하자!』는것을宣言한것이다果然이다우리는大衆本位인新社會의建設에責任을가진青年戰士들이 朝鮮民衆解放運動에先驅者가될使命을 가진勇將들이다우리가이와같은責任과使命을다하라면 團結이唯一한武器이다그리나우리는 過去를돌아다볼때에이러한武器가없었다그리하여우리의運動은 모든失敗를體驗할뿐이엇다多數한民衆의무서운絶叫도이섯스며多數한民衆의뜨거운피도흘렸스되그 結果가이와같은慘憺한現象에陷한것은무슨사담인가우리가스스로아는바와갓치또는 世間이널이아는바와갓치우리民衆의運動이統一된中心勢力에잇서서大同으로團結의武器를가지지못한所以이다

時代는轉換하였다大衆을本位로한 新社會建設의潮流로그리하여民衆의運動이이時代思潮의順應으로모든解放을 圖謀하게되엇다엇지이것이朝鮮社會의特殊한現象이리요널이世界를 통한改造運動의趨移이다 今番青年總同盟創立大會가이러한意味에잇서서團結의第一聲을放하였다그리하여二百二十三個의青年團體가加盟된것이다 그럼으로吾人은이大會의圓滿한進行을祝하는바이며싸라서이大會의將來에偉大한 期望을가지는바이다」

3. 「北風會」의 조직에 대하여

朝鮮日報는 인류의 역사를 창조와 반역의 반복을 통한 진보로 보고 그러한 변증법적 진보의 중추적 동기가 되는 것은 經濟的 條件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에 따른 有産階級對 無産階級の 階級的 利害를 목표로 하여 모든 문화가 창조되고 모든 투쟁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와 아울러 그를 옹호하는 中間階級들의 保守的 妥協의 文化와 勞動階級の 創造的 反逆的 文化가 현대문화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나 朝鮮의 문화는 뒤떨어져 있고, 그만큼 社會運動도 역사가 길지 못하고 유치한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새로 조직된 사상단체인 「北風會」의 출현은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일대 전환기가 되며, 이를 계기로 主義와 思想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이 통일을 이루어 최후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同心戮力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있다. 「北風會」의 조직에 대한 朝鮮日報 사설의 요지를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⁹⁾

9) 朝鮮日報, 1924. 11. 29, 사실, “社會運動의 方向轉換, 一北風會 出現의 報를 두고”

「人類的歷史는創造와反逆의連鎖이다 反逆은創造를前提로하고이러나고 創造는反逆의張本이되어야서 이것이反覆轉換되는동안에人間生活은向上된다 人類的歷史는進歩한다社會의文化는發達한다…… 그런데元來反逆으로부터創造에! 創造로부터反逆에反覆하는가운데언제나中樞의動機가되는것은經濟的條件이다…… 個人과個人사이에民族과民族사이에鬭爭의導火線이되는經濟的條件은 여러가지假裝과여러가지變形으로써人間生活을支配하고있다 強者가弱者를侵襲하고 富者가貧者를絞取하면서도巧妙한口實로써어느時期까지一般民衆의判斷을眩惑케하고瞞着하여왔었다……」

「그런데資本主義自體缺陷으로말미아머나날이破綻을破綻을거듭하게되야如何히巧妙한手段과口實로大衆을瞞着하고愚弄하라하여도 벌써그時期가아닌지라大衆은支配者와搾取者의陰險한心法과貪婪한手段을容認하고는 自體의生存權을到底히完成할수업는것을理解하게되었다그리하여은世界人類는 利害가相反되는有產階級對無產階級——征服者被征服者群의對立으로서 兩大陣營이分野되게되었다차라서階級的利害를目標로하야모든文化가創造되고모든鬭爭이繼續된다 그럼으로資本關과아울러그를擁護하는中間階級들의保守의妥協의文化和 勞働階級的創造의反逆의文化가現代文化의一般의特徵을作하게된것이다 그리하여이제人類的歷史는새로운廻轉期를向하야움직이고있다」……

「朝鮮社會는다른나라에比하야文明程度가뒤진만큼社會運動도그만큼幼稚하고歷史가길지못하다 그런데아무리짧은歷史를가졌다하드래도運動으로서 밭을順序를밟고지낼時期는지내야할것은贅論을不俟할바이다」……

「初期運動의目標은思想의醇化와同志의糾合에잇게되거니와그時期를經過하면運動의大衆化即組織化하는時期로드러가는 것이다다시말하면初期의理想的傳道の運動으로부터現實的組織的運動의次期로드러가는것이다」……

그런데우리의社會運動은實로그러한計劃時期的展開을 물거름이업섯것이다…그럼으로누구나時期로보든지必要로보든지運動의統一을 痛感치아느미아니언만은現實에서統一의曙光은耿耿하고混亂한前途가暗澹함을痛歎치아니할수없다 그런데이제음에새로운思想團體가出現하야運動의大衆化를目標로하고나아가라는 것은무엇보다도欣喜하는바이다 이것을우리社會運動의一大轉換期로하야統一의曙光이促進될것을감히囑望코자한다 要컨대主義와思想이가튼同志들은大同目的을爲하야個人的感情이나利害를能히沒入할만한雅量을가지고 最後의目的을達成키爲하야同心戮力하기를바라고이에擲筆한다」

4.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 대하여

火曜會가 주동이되어 개최할 준비를 했던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 대

하여 朝鮮日報은 사실을 통해 이 대회가 목적하는 것은 항구적 회의를 조직코자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각각의 단체(운동체)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 대회는 단지 전반적인 민중운동을 표방하는 각 방면의 노력을 규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朝鮮日報의 견해를 나타낸 사실의 일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勿論 今番大會의 目的하는 바는 恒久的 會議를 組織코자 함은 아니리라. 다시 말하면 各方面의 社會運動에 各히 門戶를 달리하는 既成團體가 組織하여 있는 以上 다시 以上에 別個의 統合團體를 組織한다는 것은 도로혀 屋上架屋의 嫌이 없지안할 것이요 또 事實上 不可能한 바이다. 그럼으로 이 大會의 性質에 關하여는 或種의 定期的 會合을 必要로 하는 것은 別問題로 하드래도 一定한 規矩에 支配치 않는 가장 圓融無碍한 그것이랴 할 것을 우리는 豫히 一言하는 것이다.다시 말하러면 朝鮮에서 普通 社會運動이라고 概括하는 勞動 農民 衝平 青年及 女性 運動의 諸項目外에 朝鮮의 教育 宗教 經濟 言論 其他 各方面의 總意思를 代表할 만한 全民衆의 會合을 우리는 切實히 期待하여 마지안는 것이다. 무릇 엇더한 方面의 運動을 不問하고 그 運動의 完全한 成熟을 期하기에는 만흔 時日과 努力이 要하게 될 것이어니와 더욱히 特殊한 境遇下에 있는 朝鮮民衆運動의 前途를 가지고 말하면 到底히 短期時日의 努力으로써 그 完全한 成果를 期待치 못할 것이다, 하물며 朝鮮社會運動의 各方面努力이 오늘날과 가티 그 外面의 體樣은 如何間에 그 內部의 實質이 아즉도 確立한 基礎가 없는 現狀에 있어서는 이와 가튼 各方面의 努力을 糾合하여 能히 全朝鮮民衆運動의 統一의 新活路를 開拓하기에 多大한 難關이 伏在할 것이다. 이 意味에 있어서 今番大會의 開催가 朝鮮民衆運動의 一試驗인 同時에 또 當然히 밟지 안하면 아니될 歷史的 階級의 一序幕인가 한다. 바라건대 이 有義한 것 試驗이 만흔 有美의 果를 得하기를 切히 期待하여야마지 않는다.

10) 朝鮮日報, 1925. 2. 22, 사실,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 對하여”

5. 朝鮮共產黨事件에 대하여

1925년 11월에 일어났던 세칭 新義州事件으로 인해 朝鮮內에 共產主義 秘密結社가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朝鮮共產黨 責任秘書 金在鳳과 高麗共產青年會의 責任秘書 朴憲永을 비롯한 黨과 共靑의 간부는 물론 그 조직구성원들이 「전국적으로 대거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25년 12월 22일의 제1차 검거가 시작된 이래로 26년 9월 7일에 檢事局으로 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검거에 걸린 일수가 3백 일에 이르며 검거된 인원이 2백 20여명에 달하고 公判에 넘은 사람만 1백 1명이 되었다. 이 사건의 豫審取調記錄이 四萬餘 페이지에 달했다고 한다.¹¹⁾

이 사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은 1927년 3월 31일의 豫審이 끝나는 날까지 일체 금지되었었다. 그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일부 발표의 자유”를 얻게 되자 朝鮮日報은 즉각 사실을 통해 共產黨組織의 完備함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共產黨組織이 국제적으로 연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朝鮮의 運動이 朝鮮만의 運動이 아니라 世界運動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은 남다른 신념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思想을 제거한다는 것은 의무이라고 의견을 표시하고 비밀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 때문에 비밀조직을 탄로나게 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논평하고 있다. 이같은 朝鮮日報의 사실내용을 간략히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¹²⁾

「그事件이豫審中에잇을새에는 一切報道의自由가없었고 左論評의自由도없었더니 그것이三月三十一日에終結되게되었습으로 지금에와서야 그事件의一部發表의自由를얻게된것이다」……

「그秘密組織이如何히完備한것인가를볼새에一驚을喫하지아니할수업고또그것이國

11) 朝鮮日報, 1927. 9. 14, 사실, “個人과 結社 一 共產黨事件 公判開廷에 臨하야—”.

12) 朝鮮日報, 1927. 4. 3, 사실 “朝鮮共產黨事件.”

際的으로聯絡되어있었다는點으로보아서朝鮮의運動이朝鮮만의運動이아니요 世界運動的一部分이된다는것을생각할수있게된다……」

「또그運動이具體化하여들어감에따라서秘密組織을取하지아니하면아니되게되었다는點으로보아서그것이現朝鮮의制度와서로 容納되지못하는것인줄을알수있는것이이다와가튼運動을이르키고이와가튼組織에參加하는 사람으로서는남보담덜은생각을가것슬것이다 그럼으로그들이法網에걸리어서刑辟을當하게된다하더라도그들로부터이思想의除去하는것은疑問이라고생각된다 그들의年齡으로보면모도다三十歲前後의壯年期의人物들이니그들이아모憲分別없이그와가튼行動을取하였다고 볼수없는것이이다 이것은朝鮮問題를생각하는者의特히留意할點일것이다……」

「그事件이新義州에있어서端緒를잡히게된經遇를볼때에秘密運動에從事하는사람으로서의注意가 不足하였다는것이다 酒肆에서酒氣로 因하야이러난鬭爭으로因하야그들이그리도嚴重히秘密히직히려고하던組織이綻露되게되었다는 것은이事件을觀察하는者의注目되는點일것이다」

또한 朝鮮日報는 “今年(1927)에 들어서 全世界無產階級の 激動을 일으킨 事件이 있다고하면 하나는 去月二十二日에 米國 白色恐怖政治에 犧牲되고만 『삭코』 『반제틱』 死刑事件을 들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昨朝 公判이 開廷된 朝鮮共產黨事件이 꼭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폈다.¹³⁾

「여기에適用되는法律은治安維持法과大正八年制令第七號가주장이며出版法까지附隨되는것이있다한다 이三種法律이現時勢에適合한가아니한가함은見地가달음에따라各各解釋이달것지다는 現在西洋先進諸國에있어서共產黨이한政黨으로堂堂하게旗幟를들고나옴을對比해볼때에 참으로隔世의感이입슬수없다 勿論저희들의國家에있어서도그行動까지全然自由인것은아니다마는結社그것만은社會에實際影響을 미치지 않는程度에서는容認되는것이다그러나 日本더욱이朝鮮에있어서는法理의議論이돌아迂濶한만치되어있슴으로더말하지아니하나發達된 法理論으로볼때에는『삭코』『반제틱』事件이나朝鮮共產黨事件이나 그性質이根本으로달음이입슬뿐더러한걸음더나아가無產階級の團體運動에있어서처럼경계리취운危脅까지느끼게되는 것이다그럼으로이러한法律이發布되는데에無產階級の猛烈한反抗이일어났든것도記憶에새로움이있다」

「그러나우리는이제그適用法律自體를들어말함보다는이제이가튼法律을가지고도그適用의程度가東京과京城이달르지아니할까하는疑懼가또앞서게된다 듯건대開廷劈頭

13) 朝鮮日報, 1927. 9. 14, 사설, “個人과 結社”

부터身分訊問을마치자檢事の傍聽禁止의要求가 있었다고하며事件移送에對한手續不備問題로辯護士로부터公訴不成立의申立이있었다고한다 이와가리大事件의公判이何等의理由로처음부터傍聽을制限하며더욱이事件審理에들어가서는 그나마傍聽을禁止시키라고하는지 正當한法律알에 正當히審理함에何等의秘密이있을까民衆의好奇心은 돌이켜그秘密의內幕을차저밝히려하고焦燥함에일으게된다 다음에이大事件을審理함에當하여야開廷劈頭부터手續不備로 問題를惹起케함은이엇지慎重한處事라고볼수있을까이외에도不法監檢問題라든지手續上漏落의種種의問題가法曹界에서 썩들어나오랴함을듯게된다

要컨대우리는이大事件公判에臨하야注意와監視를제울리할수업는 同時に法廷에서直接辯護의責任을가진諸氏에게公正을爲하야는 어데까지든지奮闘하여주기를바라는바이다 비록言論의自由가얼는朝鮮일지라도 法廷에서容許되는 辯論自由는이러한機會에利用하지안코어느새를기다리며支配者群의政治의裡面은 이러한機會에暴露시키지안코어느새를쏘기다리겠는가辯護士諸氏의責任은實로重大함을 느끼게되며차려서企待도深切한바이다

이와함께 朝鮮日報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여 전세계의 관심이 이 재판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공정한 재판과 변호인들의 희생적인 봉사를 강조했다.¹⁴⁾

「全朝鮮을網羅하야被告百一人에達하고最初檢舉로부터公判까지二十餘朔을費하였으며檢舉되엇든人員이二百二十餘名에達하였고 豫審取調記錄이四萬餘頁에及한今次의朝鮮共產黨事件은量的으로보아서도 朝鮮의最大事件이되거니와特히그의綱領組織及國際關係로보아서質的으로 朝鮮에잇서서空前의大事件이될뿐아니라實로全世界의新興階級을激動시키는重大事件이되어있다 알아서吾人의屢次要望하여온바와가티倍一層司直의公正을期하여야할것이엇고裁判의公開及法廷의警戒에對하여는 特別한注意가잇서야할것이엇다」……

日本에서公開한共產黨公判을 朝鮮에서禁止한다는것도알수업거니와新聞記者의傍聽까지禁하면서警官에게는 多數의特別傍聽權을發行해야辯護의強硬한要求로取消에紛忙하였슴도不少한失態라할것이다 公判庭에까지나서지 못하는重納者의保釋은何故로不許하며法庭의警戒에鐵條網까지둘러이할必要는那邊에在한가? 特히裁判長은 某問題로院長과長時間의協議를하였다는말이잇고 某署長은特別傍聽問題로法務當局과交涉한일이잇다하며글로因한司法當局과 警察當局의反目說까지傳하니萬一事實이라

14) 朝鮮日報, 1927.9.19, 사설, “다시 共產黨裁判에 對하야” 이와 관련하여 朝鮮日報, 1927.9.15, 時評 “共產公判問題”를 참조할 것.

하면 더욱重大問題가 될 것이다 司法의 獨立과 司直의 尊嚴은 奈邊에 在한가?……

「事件이 事件이요 世界列國의 環視下에 公開되는 그마치 司直의 一層 公正과 細心한 注意가 있서야 할 것임에 不拘하고 失態에 失態를 거듭하여 不注意 不謹慎을 餘地없이 暴露함을 볼새에 一言의 忠告가 있지 아니할 수 없다 過去를 미루어서 未來를 보는 것이 不變의 原理라 한다면 吾人은 司直의 公正에 對하여 今後에도 만히 바람을 가지기에 힘든 것이 遺憾이다 그러나 吾人은 그의 最後의 公正을 바라는 同時에 人格의 擁護를 爲하여 報酬를 쳐나서 專心專力으로 辯護의 勞를 取하고 있는 辯護士諸氏의 最後까지의 努力을 바라고 또 잊는 바이다」

朝鮮日報은 共產黨事件의 結審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外形으로 나타난 事件의 規模를 보아 놀라운 바도 업지 못하나 그 보다도 重大한 意味를 차지하고 할진대 共產黨事件自體가 우리에게 提示하는 歷史的 意味가 하나이며 다음에는 共產黨自體의 政治的 活動보다도 共產黨公判이 全社會의 人心을 鼓發시킨 그것이며 그 다음에는 辨護人의 結束의 抗爭이 職業의 小썩루조아지—의 意識을 쳐나서 公正을 爲하여 얼마나 만흔 暴露戰을 持續하여 왔든가가 마지막 우리의 興味를 끄는 것이다”라고 논평했다.¹⁵⁾ 그러면서 “共產公判은 이에 結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公判의 影響은 날이 지날수록 새로운 記憶을 더하여 長久히 繼續될 것을 의심치 아니한다. 被告人의 犯罪事實 如何는 그 判決을 기다려 判明되겠으나 그 判明與否가 우리에게 問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그 判決에 이르기까지의 政治的 脈絡이 엮어간 것인가를 세타는데 잇는 것이다”를 결론으로 제기하고 있다.¹⁶⁾

Ⅲ. 民族主義와 社會主義

1924년부터 1927년의 新幹會결성에 이르기까지 朝鮮日報의 사설은 民族主義(民族運動)와 社會主義(社會運動)의 兩者間의 관계와 協同戰線의 형성문제를 빈번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이 당시의 사실들

15) 朝鮮日報, 1928. 1. 16, 사설, “共產黨事件結審을 보고서.”

16) 같은 글.

에 나타난 극된 관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民族意識과 階級意識은 엄연히 별개로 존재한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즉 세계의 조류는 勞動階級の 解放運動과 弱小民族의 解放運動이 서로 손을 잡아 인류를 완전히 해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나 階級的 解放은 필연적으로 民族的 解放을 요구하지만 民族的 解放은 의례히 階級的 解放을 요구한다고 할 수 없다는 데 社會主義者和 民族主義者の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世界單一國家의 이상은 民族主義의 實現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階級解放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므로 民族的 解放을 요구하는 데 까지는 階級解放運動家나 民族解放運動家가 협동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그와같은 목적이 달성된 뒤에 社會組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자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둘째,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은 각기 解放하려는 대상은 다르나 그 방법이 반드시 다르다고는 보지 않는다. 즉 어느 경우에는 民族解放을 위해 社會改造의 전략을 채택할 수 있으며, 또 社會改造 혹은 階級的 解放을 목표로 삼는 일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한 民族을 하나의 단위로 삼게 되고 마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¹⁸⁾

셋째, 帝國主義와 항쟁하는 것은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의 공통된 임무이다.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最新階段으로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달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社會運動者의 힘과 民族運動者의 힘을 帝國主義 타도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집중하는 것은 朝鮮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즉 民族運動者가 資本家的의 由來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철저한 民族運動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資本主義인 帝國主義를 약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社會運動家가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막대한 無產者를 포용한 민족의 해방을 꾀하는 사람은 그

17) 朝鮮日報, 1926. 6. 14, 사설, “階級意識과 民族意識”

18) 朝鮮日報, 1925. 1. 8, 사설, “解放戰地에 二大潮流과 二大障害”

階級的 해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알릴 것임으로 진정한 民族運動家は 또한 社會運動의 門에 들어와야 하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⁹⁾

네제, 民族左翼戰線의 형성이 필요하며, 解放戰線에서 民族左翼戰線이 주역을 담당하고 社會主義運動者들은 지원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民族主義의 左翼戰線을 형성하여 변동하는 시국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朝鮮의 時代意識이라고 보고 있다. 그 까닭은 타락을 의미하는 기회주의(예컨대 「大同團」같은 세력)와 右傾의인 타협운동이 대중의 목적의식을 마비케하고 투쟁력을 소모케 하여 식민통치자의 의도에 부응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타협적인 民族主義左翼戰線을 형성하여 먼저 대중의 견고한 단결을 도모하고 정치적 혼란과 투쟁을 병행함이 옳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自治運動을 하는 右派民族主義를 배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社會主義運動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²⁰⁾

「左翼民族戰線은當然히最左翼인社會運動戰線과聯結하게될것이다그는어셔한物的聯合이있거나언거나斗争이共同한目標向하여야되는날까지에는반듯이그리될必然性이잇는것이오또當爲의일이되는것이다 그리고思想的分野에잇서서社會運動戰線이그의第一線에잇슴에不計하고現下의實戰場의平面的排置에서는左翼民族戰線으로하야금그正面의主力部隊로서第一線에나서야할것과社會運動戰線으로서는그의側面에서應援의砲火및突賊을보내여주어야할것은前者에도말한바가잇섯다」

이상과 같은 논조는 모두 民族主義運動勢力과 社會主義運動勢力의 協同戰線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그와같은 필요성을 강조하는 民族主義세력과 社會主義者들 사이에 궁극적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될 수 있겠다. 民族協同戰線을 형성함에 있어 右派民族主義者들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당시 朝鮮日報를 중심으로 한 民族主義者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新幹會결성에 참여하는 左派民族主義세력의

19) 朝鮮日報, 1926. 4. 14, 사설, “社會運動과 民族運動과의 相關”

20) 朝鮮日報, 1927. 2. 9, 사설, “民族左翼戰線의 意義및使命,” 이와함께 1927. 1. 23, 時評, “民族左翼戰線”을 참고할 것.

태도를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4년부터 1927년 사이의 이와같은 朝鮮日報의 논조는 新幹會의 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의 共同戰線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논설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¹⁾

「現下朝鮮의 思想界에는 民族主義, 社會主義의 二大潮流가 合流한다 三一運動을 新紀元으로 하여 最高度로 沸騰하였던 民族의 意識이 그 運動線上的 自然한 支障으로 因하여 時日의 遷延을 免치 못하는 同時에 社會主義의 激瀾이 滔天襄陵의 勢로 半島江山에 汎濫함에 絶望中에 도오히려 세로운 무엇을 憧憬하든 大衆特히 資本階級の 擄取를 當하고 飢餓困憊에 呼號하던 無產大衆이 率先하여 이主義를 信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固有의 民族主義와 新來의 社會主義와의 思想衝突이 생기어서 反目, 嫉妬, 排斥이 날로 激烈하여 집은 廻避할 수 없는 自然의 趨勢이 다이에 思想界는 混亂狀態에 빠지어 不安恐怖, 絶望, 悲哀, 疲勞의 陰慘한 雰圍氣가 社會를 包圍하였다 이 와 같은 思想의 動搖로 因하여 一般人心은 民族意識이 軟薄할 뿐더러 階級意識도 아직 微弱하여 그 歸趣할 바를 알지 못하고 岐路에서 彷徨하게 되었다」……

「元來 民族主義와 社會主義와는 서로 兩立하지 못할 形勢로 인하여 日本의 赤化防止團對 社會主義者의 衝突, 英國 社會主義者의 印度 民族解放을 幫助하는 等實例가 證明하는 바에 이니와 우리 朝鮮과 같은 弱少民族에 限하여는 더 強大民族內의 그것과 夾치 氷炭不相容의 理由를 發見할 수 없다 強大民族의 民族主義는 利己排他的 軍國主義의 色彩를 色에 反하여 弱小民族의 要求는 單純한 民族의 解放에 不外한 것이며 強大民族의 社會主義의 敵人 資本階級은 그 民族自體內에 存在하지 마는 被征服民族의 擄取階級은 民族自體內에 있다 하기에 보다는 차라리 征服民族內에 있다 함이 穩當한 見解가 아닌 가 詳密히 解剖하면 小弱民族自體內에도 資本階級이 없는 것은 아니나 極少數에 不過한 뿐더러 征服國의 支配階級에 依附하여 겨우 殘喘을 保存하는 무리다 社會主義로써 그것을 敵對의 階級으로 볼 價値도 없고 民族主義로 보아도 그것은 叛逆者로 排斥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朝鮮의 民族主義와 社會主義와의 衝突되는 理由가 어디에 있는가 強大民族의 支配階級即 資本階級은 自階級の 存續과 利益을 爲하여야 하는 國內에 在한 社會問題의 紛糾를 緩和하기 爲하여 軍國主義로써 新市場을 海外에 開拓하고 小弱民族에 向하여 經濟의 擄取를 肆行함으로 國際의 紛糾와 民族의 軋轢이 多다이에 由生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被征服民族에 있어서는 民族主義나 社會

21) 朝鮮日報, 1924. 5. 17, 논설, “現下思想界의 二大潮流, 一民族主義와 階級意識一,” 이 밖에 1925. 1. 9, 사설 “民衆勝利의 第一要件, 一共同戰線과 走狗黨退治一” 및 1925. 5. 10, 5. 11. 사설 “思想戰線에 호하여”를 참고할 것.

主義를 不問하고, 그目標가모다 征服者의 經濟的 擄取와 政治的 壓迫으로부터 解放함을 欲하다할수잇스니 서로 反目 嫉視할 理由가무엇인가그러나 그 內部를 解剖的으로 細察하면 兩者間의 顯著한 差違가잇음을 發見하겟다 前者는 政治的 解放을 要求함에 反하여 後者는 經濟的 解放을 要求하며 前者는 民族一致를 高調함에 反하여 後者는 階級意識을 絶叫하나니 即前者는 抽象的 觀念이요 後者는 具體的 現實이다 그런데 征服者가 強大民族中 資本階級임에 不拘하고 그 民族內에서 도우리와 同一한 擄取를 當하는 無產階級까지 敵視함은 民族主義者의 謬見이 아니라 할수잇으며 民族全體가 共通한 利害關係가잇슴에 不拘하고 同牆相關으로 自體부터 分裂코저 함은 社會主義者의 誤算이 아니라 할수업다그러면 兩者의 見解上 差違와 政畧의 誤謬를 考察하야 多少의 修正을 加할 必要가잇다

民族主義者中에는 強大民族의 政治的 壓迫의 根本原因이 經濟的 擄取에잇음을 忘却하고 國粹의 情神 民族의 反感에 疾走하야 階級意識을 無視하고 妥協的으로 民族一致를 強調하는일이만타 그리고 社會主義者中에는 實際를 輕視하고 理論에 偏傾하야 地方의 特殊事情을 考慮치안코 先進國의 實例들그대로 適用하라는 嫌의 업지안타 民族의 解體를 絶叫하야 共同線上에선 戰友를 驅逐함이 政略의 錯誤이다 日本의 護憲派와 英國의 勞働自由兩黨의 提携를 照하여도 政畧上一時 協同할 必要가잇지안는가 그러면 前者는 主義에 修正을 加하고 後者는 政畧을 應變하야 民族의 階級的의 大同團結로써 共同戰線에 並進함이 現下의 得策인 줄로 思惟한다」

Ⅳ. 勞動運動과 農民運動

1. 勞動運動

이 시기의 신문은 社會組織이나 社會問題 혹은 社會運動이라는 개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의 사회과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같은 용어들과 개념상의 外延과 內包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 당시 사용하고 있는 社會組織이란 體制를 의미하며 이것은 보다 좁은 뜻으로 資本主義체제와 社會主義체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社會問題는 社會組織에서 파생되는 체제구조적인 문제가 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有產階級과 無產階級の 문제로 압축되고 나아가 無產階級の 解放問題로 귀결된다. 따라서 社會運動은 社會主義運動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無產階級の 解放運動을 뜻한다. 그러므로 社會運動은 資本主義체제인 社

會組織을 개조하기 위한 勞動運動과 同一視하는 경향이 짙다. 물론 社會運動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勞動運動과 農民運動을 다같이 포괄하는 것이나 대개의 경우 勞動運動의 의미로 쓰고 있다.

朝鮮日報의 사설이나 논설은 勞動問題를 요컨대 階級투쟁으로 인식하고 無產者階級の 解放을 전제로 삼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 그리하여 勞動問題의 해결 방안은 자본주의체제를 타파하고 일체의 생산기관과 소비기관을 公有 혹은 國有化하여 共產的 社會組織으로 改造하는데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를 시인하고 자유주의의 경제조직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진보와 발달을 도모하려는 社會改良主義는 배격된다. 즉 勞動運動은 “無產大衆의 勞動을 搾取하는 有產階級の 苛酷한 渦中을 超脫하여 彼等の 生存權을 回復하고 人類共存의 舞臺에서 萬人平等의 生活安全과 向上을 圖코저하는 運動이니 이 運動은 近代工業文明의 發達에 伴하는 資本主義的 生産組織下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必然의 經路에서 出來하는 運動이다. 그리하여 이 運動은 그 理想을 實現하며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그 수단으로 階級鬭爭을 行한다. 이 勞動運動의 原因이 産業的 社會組織의 不合理함에 있으므로 먼저 이 組織의 改造가 必要하다”는 것이다.²²⁾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勞動運動은 불가피하게 勞動爭議를 통해 현실화 된다. 勞資爭議는 近代資本主義文明이 產出한 社會問題의 中心으로 본다. 勞動階級은 資本家の 횡포를 製肘하기 위한 무기와 전략을 정하게 되는데 따라 勞資爭議는 구체화되고 심각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勞資爭議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예를 한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²³⁾

「그런데 勞資爭議를 일으키는 直接動機는 두가지가 있스니 첫째는 資本家が 社會的으로 優越한 地位와 權力을 가지고잇슴으로 勞働者의 모든 勞働條件을 自身の 利潤慾을 充分하

22) 朝鮮日報, 1923.8.31, 논설, “勞動運動에 對한 現代의 政治”

23) 朝鮮日報, 1925.3.8, 사설, “勞資爭議와 直接行動의 價値와 意義(上)”

기에 가장有利하도록任意로制定하여勞働者에게 이것을强要하게 된 다그러면勞働者는 여기에無條件屈從이 아니면反抗하게道理가 없다

그다음은勞働階級이階級の利益이란것을意識하게 되는 것이動機가되나니 다시말하면모든社會의生産이直接自階級的手中에서生産됨에 不拘하고自階級은一生派동안窮乏悲慘한生活을하게되는 反面에資本家は資本이란特殊物을利用하여莫大한利潤을擄取하여가지고浪費享樂生活을하게되는것을 理解하게되는세에經濟組織그것에根本的不滿을 품고이것의變革을目的으로 하고이러나는것이다……」

「그러면勞働者는宿命的으로永遠히資本家の暴力下에서呻吟하게될것인가이에勞働階級은資本家の게對抗할鬭爭의武器로서『團結』이唯一의武器임을發見하는同時에一步를進하야資本主義的經濟組織의指導原理가 온대包藏되어있는非理와缺陷을指摘하면서 獨特한自階級의新文化를創造하야遠大한階級戰의目標를確立하고一面으로는當面問題의解決策으로經濟的直接行動을取하기까지到達한것이다」

나아가 勞資爭議가 불가피한 이상 勞資爭議에 있어 勞動階級の 투쟁무기로써 경제적 직접행동인 同盟罷工을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동맹파업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²⁴⁾

勞働階級이勞資爭議의解決을目的으로하고 同盟罷工이란武器를 使用한結果 或은部分的勝利를傳하기도하고 或은慘酷한解雇, 犧牲의脅威下에서降參하기도하고 或은有耶無耶間에無結果로終하기도하는過程에잇서勞働階級の利害는 如何한가有利한條件을得하는세나慘敗를當한세이나를勿論하고勞働階級에게는 徹頭徹尾有利하다할것이다 假令慘敗의戰績으로降參한다하드라도階級意識의成長蘊蓄과一時的抑鬱이遠大한勝利의自信을胚胎케할것이오勝利들었드라도그만큼利益을奪還하는 外에前述한利益을獲得하게된다

要컨대勞資爭議는資本家の擄取支配態과 勞働階級の生存權의主張과生物의要求와의鬭爭인바답에部分的鬭爭에잇서支配階級이如何한 權力을動員하야干涉한다하드라도勞働階級은歷史的推進力을背景으로하고發達될뿐일것이다 그러므로이에對한政策이있다면이것을利導함이可할지언정無條件壓迫이能事가되지못할것은勿論인가한다

한편 이 시기의 朝鮮日報에는 勞動問題와 勞動運動에 대한 계몽을 목적으로 한 글들이 많이 실리고 있다. 1923년 7월 7일부터 같은 해 10월 23일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연재되었던 林癸未夫(一記者譯)의 「國際勞動

24) 朝鮮日報, 1925. 3. 10. 사실, “勞資爭議와 直接行動의 價値와 意義(下)”

運動史」, 1923년 10월 18일부터 1924년 1월 5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연재되었던 北澤新次郎(康永源譯)의 「新社會의 建設」, 1921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렸던 宋根雨의 「勞動問題의 原理」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이 가운데서 「國際勞動運動史」의 目次를 소개하면 註와 같다.²⁵⁾

25) 朝鮮日報, 1923. 7. 7~1923. 10. 23

國際勞動運動史

緒	說
1. 國際勞動運動의 文化的 意義	
2. 國際勞動運動에 鳥瞰圖	
(1) 온화파의 회의	(2) 급진파의 회의
(3) 제 2 인터내셔널의 결과	(4) 無政府主義者의 排斥
(5) 社會黨員 人格是非論	(6) 勞動組合政策
(7)	(8) 開戰前의 悲戰運動
(9) 戰爭을 是認한 各國의 社會主義者	
(10) 徐徐히 覺醒한 인터네셔널	
(11) 聯合國 社會黨及 勞動組合會議	
(12) 第2 인터네셔널의 復活	
(13) (14) 第2 인터네셔널의 상임위원회	
(15) 제 2 인터네셔널의 再建	
(16) (17) 미숙한 第2 인터네셔널	
(18) 協動戰線運動의 失敗	
3. 勞動組合의 國際運動	
(甲) 國際勞動組合聯合會	
1. 戰前의 勞動組合 國際會議	
2. 戰爭中의 分裂	
3. 암스텔담회의	
4. 5. 제 3 인터네셔널과 論爭	
6. 미국노동연합회의 탈퇴	
7. 羅馬會議	
(乙) 國際勞動組合聯盟會에 속한 產業別 인터네셔널	
1. 國際坑夫聯合會	2. 國際運輸勞動者聯合會
3. 금속노동자	4. 방적섬유공
5. 건축직공	6.
7.	8. 모자직공

2. 農民運動

農民運動은 農村問題가 一般社會問題의 一部分인 동시에 勞動問題의 일부분이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상공업이 발달되지 않은 朝鮮社會에서 農村問題는 社會問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勞動問題의 거의 전부가 되므로 農村問題를 떠나서 朝鮮의 民衆問題를 논의하는 것은 허위가 아니면 極少部分的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農民運動은 人類解放運動으로 農民對 社會, 農村對 都市, 無產階級對 有產階級の 運動이 된다. 이러한 農民運動의 第一步는 地主對 小作人의 알력과 투쟁이라 보고 있다. 특히 이 당시에 발생하기 시작한 小作爭議와 관련하여 農村問題와 農民運動의 쟁점은 小作爭議에 모아졌다.

그러나 小作爭議를 보는 朝鮮日報의 관점은 農民運動이 급격하게 정치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농촌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여 정확한 목표를 확립한 뒤 최후의 승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즉 農民運動의 최후 목적이 小作料를 얼마쯤 경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無產者解放이나 新社會의 건설을 의미)을 가진 까닭에 일시적으로 기습적 승리를 피하거나 또 혼련과 조직이 불완전한 空疎한 단체행동으로 최후의 목표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妄想이 아니면 輕信이 아닌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農民運動은 모름지기 농민의 생활을 불안케한 근본적 사실에 着目하여 階級的 自覺을 촉진하는 동시에 단체혼련 및 조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

9. 硝子

10. 인채공

11. 모피공

12. 이발사

13. 음식물노동자

14. 일반공장

15. 농업노동자

16. 정선노동자

17. 피혁노동자의 국제회의

(丙)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합회(기독교인터배수날)

장이다.²⁶⁾ 말하자면 궁극적인 목표의 성취를 위해 제 1 단계 농민운동은 제 2 단계의 농민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階級的 自覺을 촉진하는 동시에 먼저 단결로써 社會的 生産의 증가를 도모하고 농촌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경작권을 우선 확립하며 소작료를 경감하기에 노력하여 최후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돌진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면으로는 産業組合運動과 같은 건설적 방면에도 깊이 用意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農民運動의 제 1 차적 목표는 농민들의 자체역량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과 같은 사실의 논지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分配問題를 이르킨 社會組織의 原理原則을 變革하기 前에는 到底히 分配問題로 이어나는 勞爭識를 根絶할 수 업는 것은 多言을 要할 바 이 아니다」……

「一社會單位로서 共同生活體인 農村이 平和, 自由의 本色을 일케 된 것은 勿論 그 原因은 土地의 資本化 일 것이다 그러나 現在 農村에 있어서 小作人과 地主 사이에 이어나는 分配問題는 決코 根本의 意味를 띠고 發生하는 것이니 故로 分配의 比率를 相當히 制定하여 小作人의 勞力까지를 搾取하는 弊害를 防遏할 것과 不當한 負擔 다시 말하면 土地로 말미암아 發生하는 負擔은 土地所有者가 負擔하게 할 것이며 仲介人一舍音一制度를 撤廢하고 小作料를 『金納制』로 採用함이 可할 가 한다

그리고 地主는 小作人에게 低利의 農資를 供給하며 農業乃至 土地의 改良을 企圖하여야 될 바이다

吾人은 이것이 姑息임 을 아나 破滅狀態에 있는 農村을 爲하야 이에 一言치 아니 할 수 업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小作問題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향을 제시하면서 階級的 利益인 小作制度의 改革을 통해 제 2 차적 운동의 시기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그러면 如何한 小作制度의 統一으로써 危機에 凝한 農村을 匡救할 수 잇을가 吾人의 所見으로 하면

第一, 小作制度는 可及의 年期限을 防止하고 『永久』를 樹立할 일

26) 朝鮮日報, 1925.3.26, 사설, “朝鮮農民運動의 政治的 傾向(下)”.

27) 朝鮮日報, 1924.12.15, 사설, “農村問題의 現在와 將來(中), 第三, 分配問題 小作爭議”.

28) 朝鮮日報, 1925.1.15, 사설, “農業政策과 小作制度(下)”.

第二, 土地로因하야發生하는負擔地稅 改良에要라는費用等은 一切地主의負擔으로할일

第三, 分配問題에있서서는小作人의投資와勞賃을計算하야純利益을分配하되 全納制를採用할일

第四, 舍音制度를撤廢하고그의가름하는 小作組合을遺漏업시設置할일

第五, 前記諸項을實行하기爲하야 地主가小作組合의團體交涉權을 承認할것은勿論이에關係한立法을要求할일

第六, 農村類廢한原因이農民過剩에있는者이니 農民勞働者의侵入을 絶對로排斥할일들이라할것이다그리고以上에말한바以外에間接手段으로 産業共同購買消費金融等의組合을小作組合으로하야금運營케하여야할것이다」……

「그런데吾人의所論에對하야一部の論者들은合法的의或은漸進的이라指謫할가한다그러나그것은誤謬이다 모든條件이郡市勞働者運動과다르고또한階級意識이比較의더필요한農民運動에있서一時的氣分の으로이러나는 運動을너머樂觀하고偉大한歷史的使命을卒嗟間에達할것으로맞는것은決定的勝利를目標하는者의取할바이아니다 그리고吾人は世界勞働運動史를按할세에步一步階級的의利益을獲得하는 運動이墮落되지안는것이事實임을記憶한다 그러면우리的小作運動도그必然의階段으로目前의切迫한問題를段一段解決함을必要로하여야할것이다

그럼으로써吾人は斷言한다朝鮮小作人들은 團體를組織하거든氣分感情에서한것을나아가 階級的의利益인小作制度의改革으로 突進하야第二次的運動의時期를 促進하여야한다

한편 農民運動에 대한 글들을 보면 勞働運動과는 달리 제물적인 논설들은 거의 볼 수 없고 주로 사실로서 小作爭議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외국인의 저작이나 논문의 번역소개도 많지 않으며 東京朝日新聞에 게재되었던 河田副郎(裴成龍譯)의 「農民運動의 現在及 將來」(1923. 7. 12~7. 24)가 눈에 띄는 정도라 하겠다.

V. 마르크스思想和 社會主義의 受容

1. 마르크스思想의 受容

一八八三年三月十四일에倫敦에서 카를 맑스는肺疾로 因하야 린헨老嫗과親友인 켈스의臨終으로고요히不歸의客이되고말았다

科學者더욱히經濟學上新記元을 劃한經濟學者로서 社會哲學上新眞理의 探求者로서 不朽의 功績을 찾고 思想家로서 革命家로서 百代의 師表가 되고 또한 勞働階級運動의 指導原理의 啓示者로서 愛와 義를 爲하야는 萬乘君主의 威勢와 三旬九食의 貧困에도 百折不屈하고 勇戰力闘하는 革命家로서 千萬무로래 타리아트의 推仰과 尊敬을 받든 자의 英靈은 이에 永遠히 塵世를 離別하였다

윗글은 朝鮮日報 1925년 3월 14일자 사실 “맑스의 四十二週忌”의 첫 부분이다. 이 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朝鮮日報은 마르크스思想을 소개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막스學說의 梗概」(新島, 1923. 10. 7~10. 10), 「唯物史觀要領記」(堺利 彦, 日塘譯 1924. 1. 9~1. 11), 「唯物史觀의 해설과 階級鬭爭史論」(堺利 彦, “社會主義學說大要” 발췌번역, 1924. 1. 15~1. 24), 「唯物史觀의 必然論」(河上 肇 “唯物史觀研究” 발췌번역, 1924. 7. 11~7. 14) 등이다. 이밖에 佐野 學의 “資本主義社會”를 발췌번역하여 소개한 「資本主義社會의 學術的 考察」(1923. 9. 16~11. 6)과 같이 직접 마르크스思想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마르크스思想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의념이나 체제를 다루었거나 혹은 有産階級과 無産階級 사이의 階級鬭爭을 논의한 많은 글들 속에서 마르크스思想이 소개되고 있다.

이 때 소개된 마르크스思想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朝鮮日報에 실린 堺利 彦의 “唯物史觀要領記”全文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²⁹⁾

唯物史觀要領記

第一節

人類가 社會의 으로 그 生活資料를 生産할 時는 或種의 必然的의 으로 自己의 意志에서 獨立한 關係를 作하나니 그 關係는 即 그 社會에 在한 物質的 生産力의 發達程度에 相應하는 生産關係니라 此 生産關係의 總和가 社會의 經濟的 構造가 되야 法律的 政治的 의 上部構造를 作하는 眞實한 基礎가 되며 又 此에 相應하는 或種의 社會的 自覺을 生케 하나니 此 物質的 生活資料의 產出方法이 社會의 政治的 及 精神의 一般 生活上 過程을 決定하는 도다 故로 人의 意識이 人의 生活을 決定함이 아니라 그에 反하야 人의 社會生活이 人의 意識을 決定하나니라

人類가 萬一個個別別로 生産을 하며 個個別別로 生活을 한다 하면 互相間 何等의 關係가 無할지나 그러나 人類가 社會의 으로 多數가 合同하야 衣食住의 資料를 作할 時에는 그 個個人의 間에는 必히 何한 關係가 生한다 그리하야 그 關係는 決코 個個人의 自作에 一任치 못

29) 朝鮮日報, 1924. 1. 9~1. 11, “唯物史觀要領記”

할 實際上에 必要에 迫하여 『自己의 意志에서 獨立한 關係』가 必然的으로 出來한다 그것이 그 時代의 『生産關係』이며 그 生産關係는 『그 社會에 在한 物質의 生産力의 發達程度에 相應』하는 者이다 石器로써 狩獵하고 耕作도 하던 石器時代에는 그 生産力의 程度가 아주 그 낮게 發達되지 못한 故로 그 發達程度에 相應하는 生産關係가 生하였스며 그 다음 鐵器를 使用케 된 程度에 까지 生産力이 發達된 時代에는 또한 그 發達程度에 相應하는 生産關係가 生하였다 그러한 生産關係의 總和(種種의 生産關係를 一括한 것)가 그 社會의 經濟의 構造이라 그리하여 그 經濟의 構造가 眞實한 基礎도 되고 地盤도 되고 土臺도 되고 그 위에 政治와 法律等 『上部構造』가 出來한다 普通 사람의 눈에 보이는 建築物은 『上部構造』뿐인 듯 하나 그러나 그것은 눈에 열는 보이지 아니하는 地下의 基礎工事의 위에 立한 것이 다 社會事도 그와 같지 普通 사람의 눈에 政治나 法律等만 보이 silen지만은 그것은 눈에 열는 보이지 아니하는 『經濟의 構造』의 위에 立한 것이 여 서 그 經濟의 構造의 方式에 依하여 政治와 法律等의 形式이 變하는 것이 다

그리고 또 그 地盤인 經濟의 構造와 그 上部構造인 政治나 法律等을 차라 그에 相應하는 『社會의 自覺』이 生하나니 道德完敎等 思想感情이 即 그 社會의 自覺이다 그 樣으로 結局『生活資料의 產出方法이 社會의 政治的及精神의 一般生活過程을 決定』한다는 (即 人의 思想에 依하여 人의 生活方法이 定)한다는 생각을 하고 設스나 實은 그 렇지 아니하고 『人의 社會生活이 人의 意識을 決定』한다는 (即 生活方法 如何에 依하여 人의 思想 自覺意識이 定)함이 아니라

第二節

그러나 社會의 物質의 生産力은 그 發達의 몇 段한 階段에서 現在의 生産關係와 矛盾이 된다 換言하면 此 生産關係의 法律的表示에 不 過한 바의 그리고 從來에 此 生産力을 自己의 內部에서 活動케 한 바의 財產關係와 矛盾이 된다 即 此 關係가 生産力의 形式이 던 事로 부터 一變하여 그 障礙物이 된다 此에서 社會革命의 時代가 始한다 經濟의 基礎가 變化한과 共히 그 巨大한 上部構造의 全部도 또한 或은 徐徐히 或은 急激히 革命을 當한다 生産關係와 上部構造와의 關係는 第一節에 云한 바와 如하거니와 社會의 生産力은 日常發達하여 간다 그리하여 그것이 몇 段한 階段까지 發達하면 現在의 生産關係와 矛盾이 된다 矛盾이 되 것은 그 生産關係를 긋 쳐 보면 조 홀 것이나 그러케 容易히 되 지 못하는 것은 生産關係가 財產關係로 된 바 即 生産關係가 所有權關係로 되 야 法律上으로 確定된 것이 다 財產關係(即 所有權關係)는 生産關係의 法律的表示이다 그래서 生産關係를 容易히 긋 쳐 지 못한다 生産力은 從來 此 財產關係의 內部에서 活動하고 있 섯스나 現在의 階段까지 發達을 하고 보 즉 此 財產關係와 矛盾이 된다 從來에는 此 財產關係에 依하여 生産力이 發達하여 왔스나 即 此 財產關係가 生産力의 發達形式이 었스나 現在에는 그것이 도리혀 生産力發達의 障礙物이 되 었다 此에서 社會革命의 時代가 始作된다 即 舊 生産力에 相應한 舊 財產關係를 破壞하고 新 生産力에 相應한 新 財產關係를 作成할 運動이 起한다 即 社

會의 經濟的基礎가 變化함을 說하라 그 上部構造인 政治法律等一切制度가 ○○를 當한다

第三節

是等の革命을 考慮함에 就하여 科學的으로 眞實한 立證을 得할 만 한 經濟的 生活條件의 物質的 革命과 人이 此 矛盾을 意識하여 此와 決戰코자 함으로부터 起하는 法律的 政治的 宗教的 美術的 哲學的 此를 一言하면 精神的 革命과 物恒常善히 區別할 必要가 있다 우리 가 었던 個人을 批判함에 決코 그 사람의 혼자 생각하는 바에 依치 아니 함과 갓치 우리가 如斯한 革命時代를 批判함에 도 決코 그 時代가 意識에 依할 수는 없다 우리는 차라리 그 物質的 生活의 矛盾中으로부터 此 意識을 說明치 아니 하면 안 된다 社會的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間에 在한 矛盾에 依하여 此를 說明치 아니 하면 안 된다

前節에 云한 바 社會革命이 起할 때는 그 一面은 物質的 革命이다 即 經濟的 革命이다 即 生活條件의 革命이다 그리고 그 것은 科學的으로 事實的으로 立證할 수가 있다 然이나 他一面에는 精神的 革命이 起한다 即 政治的 法律的 等的 革命이 起한다 그런데 그 것은 人이 經濟上 矛盾을 意識하고 그 矛盾을 解決하라는 心的 努力으로부터 起하는 것이다 此 物質的 革命과 精神的 革命과 物恒常善히 區別할 必要가 있다 우리가 個人을 批判할 때에 本人의 말인 즉 相違가 無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恠하나 그것은 兪皮肉의 이다 本人의 말은 좀 처로 時用일 수 있나 本人이 생각지 아니한 바 注意치 아니한 바 無意識한 바에서 恠히 그 사람의 行爲의 眞正原因을 볼 수 있다 그와 갓치 革命의 際에 그 革命運動에 參加한 사람들의 생각或은 『그 時代의 意識』은 좀 처로 信用일 수 있나 우리는 그러케 社會意識에 依하여 當時의 眞實을 知할 수는 없다 우리는 차라리 當時의 生活上 矛盾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에 依하여 그 意識을 說明치 아니 하면 안 된다

第四節

엇던 社會形體는 그 內部에 包容된 總生産이 十分發達된 後가 아니면 決코 滅亡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一層 進歩한 新生産關係가 現出함에 는 그에 相應할 만 한 物質的 條件이 既히 舊社會의 異下에서 孵化되 지 아니 하면 안 된다 故로 사람은 恒當 解決할 만 한 問題만을 提起하는 것이다 一層 精密히 此를 考察하면 大凡 問題가 되는 것은 必히 此를 解決할 만 한 物質的 條件이 既히 存在하거나 或은 少하여 도 發生이 始作된 곳에서 만 生함을 知한다 前節에 云한 바와 갓치 社會革命은 었던 時期에서 必然的으로 起한다 必然的으로 起하는 것이 故로 如何한 英雄豪傑이 現出할지라도 그 사람의 自意대로 革命을 起할 수 없다 社會內部에 包容된 總生産力이 十分發達된 後가 아니면 그 社會는 決코 滅亡치 아니 하며 또 舊社會의 異下에서 新社會를 做出할 만 한 物質的 條件이 孵化되 어 잇지 않으면 新社會는 決코 出生치 못한다

그런데 實際問題로는 何時가 果然 生産力의 十分發達된 時期인가 何時가 果然 物質的 條件이 孵化된 時期인가 容易히 認定할 수 없다 理論으로는 맑스의 云한 바이나 實際에는 他의 諸事情에 依하여 多少 遲速의 差가 有하도다 現에 露西亞는 資本制度의 發達이 뒤

진나라로서社會革命은第一先起하였스니 이것은種種의批判과說明이잇는것이나 此는아즉問題外에戰할맛게업다 그러나잇것던사람은恒常解決을得한한問題만을提起하는것이다 勞働問題가提起되고社會問題가提起되게되는새는必히解決할만한可能性이存在한가답이다 而今에全世界에서新社會의建設問題가起한것은그것을建設할만한物質的條件이存在한故이며或은少하여도發生하기始作되어잇는까답이다 此를逆論하면그러한物質的條件이存在하여잇거나或은 發生하기始作된새에는必히自然으로新社會建設의 希望이生하며그것을實現하라는運動이起來한다 그것이勞働運動이오社會運動이다 그래서社會革命은時期의成熟을사라必然으로起한다고云하나그것은決코사람이다 가만이잇셔도된다는意味는아니다時期가成熟하여오면即物質的條件이具備하여오면或種의人人이 그에適合한人人의腦裡에自然히將來의希望이生하며또그希望을實現하고 습은熱情이生하며그希望을實現하라는努力이出來한다 그것이亦是必然한것이다

第五節

우리는亞細亞諸國, 上古諸國, 封建時代及近世資本家時代의食生活方法으로써社會의經濟的進化的列次的大別을할수가있다 그럼으로今日の資本家の生産關係는社會의生産過程에立한最後의軌轢形式이되는것이다 그리고그軌轢이라함은個人的軌轢의意味가아니라各個人의社會的生活條件으로부터生하는軌轢이다

要컨대上古의奴隸制度, 中世의封建制度, 現代의資本制度, 此三個制度가社會의經濟的進化的大階段이였스며其間에不絶의階級鬭爭이繼續하야其時마다 革命을起來하얏스나今日の資本家の生産關係(即資本家和 勞働者間の關係)가最後의階級鬭爭最後의軌轢形式이다 그리고그軌轢은個人的의아니라即엇더한資本가와엇더한勞働者間的의是非가아니라 雇傭을하던지雇傭을 當하던지搾取를하던지搾取를 當하던지하는『社會的生活條件』으로부터生하는軌轢이다即階級的軌轢이오階級的鬭爭이다

第六節

然則此資本家の社會의內部에서發達된生産力은 同時에又此軌轢을解決할만한物質的條件을伴한다故로此資本家の社會形體와共히人題의歷史前紀가 終結을告하는것이다

此一節은前節로부터云한바를總括한것인즉別로說明을加할것도업다 資本制度가必然的으로崩壞하야幾千年來의私有財産制度가 全히消滅되고발서軌轢도階級도貧富도업는新社會가出現한다

그것이모다生産力發達의自然의結果이다 生産力과生産關係의矛盾에伴한階級間的軌轢속에서그軌轢을解決할만한條件이自然히具備하야 畢竟至今은再次그軌轢을繰返치아니할時代가到來하여진다 從하야此『資本家の社會形體』가입셔지는同時에人類는 처음으로眞正한文明의時代로드려간다 從來우리는文明時代에서살고잇는

줄로생각하였으나人類의歷史는아득아득『前紀』에屬하여있다 此資本家社會가崩壞하고다음에大共產制의社會에入할時는 길고긴歷史前紀가終結하고 처음으로眞正한文明時代即歷史의本紀를받버드러가는것이다(웃)

2. 社會主義의 受容

이 당시의 社會主義의 受容은 理念 그 자체로서 보다 社會主義運動(社會運動)과 社會問題에 대한 수많은 논설과 사실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社會主義를 소개한 글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現資本主義制度和 經濟組織의 惡弊」(金相哲, 1923. 8. 11~8. 18), 「新社會의 建說」(北澤新次郎, 康永源譯, 1923. 10. 18~1924. 1. 5), 「社會主義의 學術的 考察」(筆者未祥, 1923. 11. 2~11. 27), 「資本主義로부터 共產主義에 이르기까지」(李鍾模, 「社會問題研究」誌에서 발췌번역, 1923. 11. 24~11. 29), 「西洋社會主義概觀」(曹秉喆譯, 1924. 1. 12~1. 14), 「社會制度의 諸研究」(佐野 學, 虛堂生譯, 1924. 5. 2~5. 8), 「스탈린의 레닌及 레닌主義論」(金俊淵, 1926. 2. 12~2. 26)등이다.

이상과 같은 社會主義를 해설하고 있는 글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비록 단편적으로나마 西歐에서 전개되어온 다양한 社會主義思想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 글 가운데서 『社會問題研究』誌에서 발췌하여 李鍾模가 기고했던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 이르기까지」中 “三, 共產主義의 完成期”를 全文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³⁰⁾

三. 共產主義의 完成期

所謂過渡期는얼마큼繼續될것인지? 又共產主義의第一期는얼마만큼의길이여트할것인지? 따스는 무엇이라고이에答하지안었다 레닌도나는모른다 또알수도없다고말했다

그러나共產主義가『그固有한基礎上에發展하는』서는早晚社會의生産力은巨大한發展이되고모든것에는各人의生在을保證할수가반다시固難치안케된다 그렇게된즉共產主

30) 朝鮮日報, 1923. 11. 24~11. 29. 李鍾模, 「資本主義로부터 共產主義에 이르기까지」.

義는그半成期를經過하여야처음으로그完成期에드러가는것이고 그時期에對하야는참스
의변지가온데에次와如히更述하였다

『共產主義보다高度의階段인分業下에서個人의奴隸의隷屬이업게되고차라써精神
의勞働及肉體의勞働의對立이업게된後勞働은 單히生活하기爲하야의手段이아니고
도로혀그自身의第一의生活要求로된後個人의全面的發展과 共히生産力이또增加하
고共同의一切富源이充分히흐른뒤그처음으로 狹隘한有產者의法律的의地平線은
참으로通過되어바리고社會는그旗印上에『各人은그能力에應하야各人에게는 그欲
望에應하야』라고하는것을알수있게된다』

여기에『各人은그能力에應하야』라고한것은各人은그能力에應하야富를生産하기爲
하야勞働한다는意味이고『各人은그欲望에應하야』라고한것은各人에게는그欲望에應
하야社會의富를消費이하게한다는 것인더이것이共產主義社會의根本의原則을가장簡
明히말한것이다

今日에도家族의公部에서는이原則이實行되어있다 例하면老人이나病人이나兒孩라
는것은거위勞働은하지안으나 그러나各其必要에應하야食物이며衣服等屬을供給한다
더구나重病者가된즉조금도勞働은하지않지만은 그더도病○癒하기에必要한것이변여
러가지맛산藥을먹이고滋養物를먹이고看護婦를 付添시켜서일하는사람보다도훨씬더
消費를하는境遇가있다그러나設令일하지안트리도必要가있스면그必要한 것만큼의物
件을貯置한다는點에서사람의사람다운生活이있다 一方에는必要도업는데에만餘物件을
貯置하는사람이있고他方에는간절히必要를 感하면서그物의缺乏하는困難을當하고있
는사람이 있다는것과같은것은決코愉快한狀態라고는할수없다

各人은그必要에應하야物의給與를받는다는데게서처음으로 完全한公平이있고差別
을버서는참平等이있는사태이므로이제共產主義는 이原則을社會全般에亘하야實現
하고자하는것이다 자못問題는이일의實現이다른方面에弊害를세치지안코서果然可能
할사안을세하는點잇스나참스로써도 이런原則의適用이即히實現될수있다고생각한것
은아니다 그를實現하기爲하야는巨大한生産力의發展이前提條件으로서必要하다고한
것을充分히認證하였든것이다 그럼으로이런原則은 共產主義社會보다 高度의階段에
『個人의全面的發展과共히生産力이또增加하고 共同의富一切富源이充分히흐른뒤』
처음으로可能的것이라고하였다

그런데『各人에게는그欲望에應하야』라는原則이既히實現되면各人은다一定한生
活의保證을맞고있는새문이다 그리서일의生活의保證을得한以上은各人生活의手段으
로서일에從事할必要는업게된다 거기서『勞働은單히生活하기 爲하야의手段이아니고
도로혀그自身이第一의生活要求이라』고하는것도同時에實現되는새이다그러나各人
이일의그일을單히手段으로서하지안코그自身中에自己의目的을 現出한다고하게되면
처음으로各人의『自由인發展』이實現된다 그것을일홈하여서참스는데『個人의全面

의發展』이라고이른것이다그리서各人이이것치그全面的發展을達하고各各그事業에熱中하게되면社會의生産力은勿論非常한增加를하게될터이다

거기서참스는『個人의全面的發展과共히生産力도 또增加하고共同의一切富源이充分히流出된다』고한것을말한것이이다오히려各人이그生活을保證받게되면貧한者만肉體의勞働을負擔하지안으면안된다는經濟上的壓迫은업게됨으로『分業下에서個人의奴隸의隷屬이업게된다』萬人이다生活의保證을받게되는世上이면教育은資力있는者의獨占에만歸치안케됨으로境遇의差에根本되는個人才能의人爲의懸隔은업게된다 그리서困難하게不快한肉體의勞働은社會全體의負擔에歸함으로모든方面에機械의發明應用이行하여서 그大部分은『自然』의負擔에轉化된다 이러하여『精神의勞働及肉體의勞働의對立이조업게된다』要컨딘此等の專體는다 相互의因果關係를有한 同時に存在한現象으로서所謂共產主義의完成期에서相並하여實現될狀態인것이다

既述함과갓치資本主義의社會로부터共產主義社會『過渡期』에서는無產者의執權이行한다 即此時期에는『支配階級으로서組織된無產者』가武力의強制를行하게된다 卽차우리의社會生活에強力으로써一定한規約下에拮制되어있다는點에서는只今까지의社會와다름이업다 그러나『支配階級으로서組織된無產者』는社會員의最大數를占하고있다 그리서多數者의階級이少數者의階級을支配한다는것은少數者의階級이多數者의階級을支配하는것보담比較的容易한일이다 그럼으로『過渡期』의推移에 伴하여強制的壓力の必要는次第로薄하여온다그러나나아가서『共產主義社會의第一期』에드러간즉거기에는발서階級の區別은업게되어있는것임으로 一階級이他階級을抑壓하기爲하야의組織力即『共產宣言』에이른바『固有的意味에있는 政權』의行使는참그必要가업게된다그러나이時期는아직有產者社會의薰習이남어있는時代이고社會의各員에對하야그提供한勞働에應하야一定한權利를認證하여있는것임으로 그權利를保護하기爲하야一定한組織의社會力을要한다

強制的壓力の必要는甚히薄하여왔지만은아직참으로 그跡을흔키까지는이르지안었다

그런데更히나아가서『共產主義社會의第二期』에드러간즉『各人은그能力에應하여』일하고『各人은그欲望에應하여』貨物이給與된다는時代가되는故로거기에는何等組織의權力의必要를보지못하게된다 勿論우리는今日一家族사이에서라도間或夫婦間에싸홈하며父子間에싸홈하는것을免치못하는것임으로 設令各人의生活이保證된世上이되드록도人과人과의사이에있는不和爭論이全然히그跡을흔는다는 것은아마期待할수업는일이다 그리나그不和爭論을鎮壓하기爲하야強大한組織의腕力一例하면今日の社會에있는軍隊及警察及監獄等을必要할만큼한일은업슬터이다

거기서社會는이를強制的腕力の方面으로 말하면所謂無爲로써다사린다할수있게된다

그럼으로 맑스流로國家를強制的權力的主體로 생각하면 共產主義社會의第二期는國家를無用으로하는時代이다 一八七七年에엥게르스는次와如히말하였다

階級對立의上에잇는從來의社會는國家를必要로 하였다國家는公衆의代表者이며 그것이눈으로볼수있는形體로結成된것임에틀입은업스나 그러나그러함을得하는것은다못그것이그씨에서全社會를代表하고잇는階級の國家에限하여그럴뿐이다 그것은古代에서는奴隸를所有한市民의國家이고中世에서는 封建貴族의國家이고現代에서는有產者의國家이다

그런디國家는드디어全社會의事實의代表者됨과함께그것은 그自身을不用에歸케한다 잇든階級을抑壓하여둘必要가발서업게되여버리면特別한抑壓力인國家도또한必要업게된다社會關係에對한國權의干涉은잇든範圍로부터다른範圍에次第로 無用하게되고그리하야그自身이가만히死去한다物的管理及生産過程의指導가 사람의우에行하는統御에되신타다

國家는廢棄되는것은아니다그것은永眠하여버리는것이다『國家權力の行使를必要로하지안는社會이것은맑스의理想社會인바그것은 共產主義의完成期에서 처음으로實現되는것이다彼가『資本論』中에서그根本原則은各個人의完全且自由한發展에存한바보다 高級한社會形態라고한것并히共產宣言에서各人의自由한發展이萬人의自由한發展의條件일과갓치一自由團體라고한것은即이社會에不外한다 要컨디맑스는社會가各人의그能力에應하야又各人에는그欲望에應하야라고한것을 그旗印上에몸에依하야國家權力の死去하고永眠하는날이잇슴을未來에望見하면서죽은것이다 그러나그것이百年後의未來일가千年後의未來일가함에對하야는아모것도말하지안었다(終)

Ⅵ. 結 論

本 研究의 대상이었던 1924년부터 1933년까지의 朝鮮日報는 社會主義新聞이라는 당시의 世論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理念(共產主義理念)과 社會主義運動(共產主義運動)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報道하고 論說과 寄稿를 게재했다. 이와같은 朝鮮日報의 성격은 日帝植民統治下의 우리나라 思想界에서 1924년부터 1931년까지를 「共產主義時代」라고 부를만큼 共產主義思想이 이 시대를 풍미했고, 共產主義運動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思想界의 동향은 말할것도 없이 러시아의 10月革命以後 전세계의 思想界와 社會運動

내지 政治運動에 큰 흐름을 형성했던 共產主義와 共產主義運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소련 및 중국과 接境하고 있고 日本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3個國의 共產主義思想과 共產主義運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시대의 다른 신문에 비해 朝鮮日報가 더욱 共產主義理念과 共產主義運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동조했던 것은 당시 朝鮮日報 편집진에 共產主義者나 共產主義運動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과 朝鮮日報가 「新幹會」의 기관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전제로 하고 이 시대의 朝鮮日報에 나타난 共產主義理念이나 共產主義運動과 관련된 사실이나 논설 또는 寄稿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朝鮮日報는 각종 共產主義運動과 관련된 結社體와 조직활동에 대해 이를 고무하는 입장을 취했다. 「朝鮮勞農總同盟」, 「朝鮮青年總同盟」, 「北風會」,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등의 조직활동에 대해 사실로서 찬양하고 共產主義運動體의 統一戰線 형성을 고무한 것이 그러하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朝鮮日報는 「衡平社」運動을 無產階級의 解放運動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共產黨事件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법의 공정한 적용과 공개재판을 요구하고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한 변론을 하도록 적극 요구함으로써 변론 자체를 투쟁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民族主義와 社會主義에 대해 朝鮮日報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르나 帝國主義와 항쟁하는 것은 공통된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관점은 左派民族主義세력과 共產主義세력과의 協同戰線 형성으로 구체화되어 「新幹會」의 결성을 보게 된다. 이같은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朝鮮日報는 右派民族主義세력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民族協同戰線을 구축함에 있어 民族主義者가 資本家の 由來를 가졌다

할지라도 철저한 民族運動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資本主義인 帝國主義를 약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社會主義運動세력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막대한 無產者를 포용한 민족의 해방을 꾀하는 사람은 階級的解放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으로 진정한 民族主義運動家は 또한 社會主義運動의 門에 들어와야 한다고 보았다.

세째, 朝鮮日報은 社會運動을 資本主義體制인 社會組織을 개조하기 위한 勞動運動과 同一視하고 있다. 朝鮮日報의 사실이나 논설은 勞動問題를 요컨대 階級鬭爭으로 인식하고 無產者階級的 解放을 전제로 삼고 이 문제에 접근했다. 그리하여 勞動運動의 방향은 資本主義體制를 타파하고 일체의 생산기관과 소비기관을 國有化하여 共產的 社會組織으로 改造하는 데 두었다. 한편 朝鮮日報은 農業問題와 農民運動이 社會問題와 社會運動의 中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農民運動 역시 궁극적으로는 無產階級的 解放運動이 된다. 그러나 朝鮮日報의 논조는 小作爭議와 같은 農民運動이 성급하게 政治的 傾向을 지니는 것을 경계한다. 즉 자각하지 못한 農民들이 선불리 정치투쟁을 하려하면 農民運動 자체가 초기단계에서 좌절된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農民運動은 우선 小作爭議에서 農民의 실질적인 이득을 확보하는 데 일단 주력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階級意識을 고취하여 農民을 단결시키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넷째, 이 당시의 朝鮮日報은 共產主義理念과 共產主義運動의 教科書와 같은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共產主義思想이나 共產主義運動에 대한 觀念은 주로 日本의 共產主義思想家나 共產主義運動家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와함께 東京留學生들이 그러한 思想과 運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때 주로 소개된 共產主義思想이나 共產主義運動에 대한 아이디어는 山川均, 堺利彦, 佐野學, 河上肇과 같은 日本 思想家들의 것이었으며, 『社會問題研究』誌에 실린 글도 소개되었고, 日本의 無產政黨運動과 관련하여 「福本主義」가 알려지기도 했다.

分析對象論說

(朝鮮日報 1920~1935)

年 度	게재날자	筆 者	題 目
1921	1. 23~24	사 설	小作人 救濟策
	4. 25~26	"	朝鮮의 土地問題
	5. 11~13	"	地主와 小作人
	9. 2~5		自由平等正義와 現代生活
	9. 2, 4		特權階級の 覺醒如何
	9. 6	樂 園 生	所有의 如是觀
	9. 12~13	文 慶	小作과 社會政策
	9. 16~20	宋 根 雨	勞動問題의 原理
	12. 5	사 설	小作人을 代하여 地主에게 告함
	12. 14	"	小作人은 困境을 袖手傍觀乎
1922	12. 4~6		變態인 露西亞의 政策
	12. 11	사 설	東拓社에 對한 小作人의 不平
	12. 19	"	自作會에 對하여 遠大히 期望하노라
	12. 21	"	盟罷革化工의 慘酷한 情境
	12. 24	"	言論과 思想에 對한 當局의 政策
	12. 22~25	張 喆	個人의 完成과 社會組織
	12. 1~2. 18		歐美 各國의 社會運動
1923	1. 1	사 설	露國社會革命黨員의 審問案
	1. 2~4	"	有產無產智識階級에 對한 面面觀
	1. 5	사 설	殖産共濟의 趣旨를 贊하노라
	1. 19~20	鄭 在 旭	「칸키」經濟思想
	1. 20	사 설	民本論
	1. 31	"	思想의 動搖와 安定
	2. 19	黃 痴 生 譯	露國의 研究
	3. 3	사 설	日本人 勞動者가 朝鮮人勞動者를 排斥
	4. 5~5. 10		農業革命의 各面觀
	6. 9	사 설	社會主義者 大檢舉에 對하여
	6. 21~28	張 赤 波	朝鮮衡平運動의 厥起! 日本水平運動의 進展!
	6. 28	사 설	고무女工의 盟休

1923	6.29~7.3	權 錫 珪	新樂天觀
	7.6	사 설	六個所 고무工場主人에게
	7.7	"	密陽郡의 小作爭議
	7.7~10.23	一 記者 譯	國際勞動運動史
	7.12	사 설	同盟罷業職工에 대하여
	7.11~15		伊太利에 忽吹하는 黑杉風
	7.12~24	裒 成 龍 譯	農民運動의 現在及 將來
	7.25~8.21	"	社會變革과 思想的考察
	8.2~10	張 赤 波	文化運動과 無產者運動
	8.11~18	金 相 哲	現資本主義制度와 經濟組織의 惡弊
	8.19~28	楊 子 江	智識階級과 革新運動
	8.22~30	鄭 春 溪	婦女解放運動에 대하여
	8.24	사 설	平壤洋機職工盟罷決議問題
	8.28~29	"	계급생활과 사회적 해독
	8.31	"	勞動運動에 對한 現代의 政治一오측 근 본적 개조
	8.29~9.1	鄭 斗 殷	社會問題의 客觀
	9.16~11.16	楊 子 江 譯	資本主義社會의 學術的考察
	10.7~10	사 설	農村問題 土地에 對한 社會政策을 批判
	10.13~16	新 島	막스學說의 梗概
	10.18~1.5	康 永 源 譯	新社會의 建設
	10.24	사 설	小作料爭議에 대하여
	11.3~4	"	朝鮮의 思想界를 위하여
	11.14	"	東拓小作人의 呼怨 苛酷한 擄取
	11.15	"	小作爭議의 解決論
	11.23	"	地主들에게 또 一言
	11.2~27		社會主義의 學術的考察
1924	11.24~29	李 鍾 模	「社會問題研究」중에서 발췌 資本主義로부터 公산당주의에 이르기까지
	12.2~1.5	山 川 均	中産階級運命論
	12.22~1.7		맞설의 哲學及 社會改造論
	1.9~11	日 塘 譯	唯物史觀要領記
	1.12~14	曹 秉 喆 譯	西洋社會主義概觀
	1.15~24	堺 利 彦	唯物史觀의 解說과 階級鬭爭史論
	1.18	사 설	勞動露國과 東洋
	4.2~11	크라라세 드 킵	藝術과 無産階級
	4.21	사 설	朝鮮勞農總同盟의 成立을 聞하고

1924	4. 24	사	설	朝鮮勞農總同盟의 창립대회에 대하여
	5. 2	"	"	無產民衆의 敎育을 위하여
	5. 2~8	盧	堂 生	佐野學「社會制度的 諸研究」抄譯
	5. 17	사	설	現下思想界의 二大潮流
	5. 29	"	"	人類解放의 運動
	5. 31	"	"	勞農과 靑年兩團體에게 名實이 相應하라
	6. 15	"	"	支配思想의 解剖 —과거와 현재—
	7. 5	"	"	신구사상의 충돌과 참극
	7. 5	"	"	社會改造의 方法
	7. 11~17			河上肇「唯物史觀研究」에서 唯物史觀의 必然論
	7. 14	사	설	岩泰事件에 對하여
	7. 23	"	"	豐山小作爭議의 決果를 듯고
	8. 3	"	"	廣東의 罷業
	8. 21	"	"	衡平運動에 對하여
	9. 17	"	"	廢虛에 彷徨하는 民衆을 보며
	9. 28	"	"	地主會의 反動, 小作爭議의 對策
	11. 1	辛	日 鎔	智識階級과 社會運動
	11. 29	사	설	社會運動의 方向轉換期
	12. 14~16	"	"	農村問題의 現在와 將來, 小作爭議
1925	1. 1	鄭	栢	朝鮮靑年運動의 今昔
		辛	日 鎔	日本無產政黨의 側面觀
	1. 2	사	설	主義의 動員, 精力의 集中,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의 二大思想體系
	1. 5	尹	柱	新年을 맞는 프로諸君에게
	1. 6	사	설	反動期에 處하는 先驗者의 態度
	1. 8	"	"	解放戰地에 二大潮流와 二大障害 人類解放에 대한 全般的考察
	1. 9	"	"	民衆勝利의 第一要件
	1. 10~11	"	"	思想戰線에 立하여
	1. 13~15	"	"	農業政策과 小作制度
	1. 15			독일 뿌르조아 內閣
	1. 16			中國勞動者侵略
	1. 17			衡平運動
	1. 21	사	설	朝鮮人의 政治的分野
	1. 22			居然一年의 레닌
	2. 6	"	"	灰色黨의 擡頭의 機微

1925	2.7	사	설	解放運動者의 強固한 一念
	2.12	"		武力本位의 思想取締
	2.13			京電怠業問題
	2.17	사	설	勞動運動의 團結權과 取締
	2.18			民衆運動大會
	2.22	사	설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 對하야
	3.1	"		解放戰線을 俯瞰하면서
	3.6	朴	元 熙	國際無產婦人데이
	3.7	"		產業組合運動의 必要
	3.8~10	사	설	勞動爭議와 直接行動의 價値及意義
	3.14	"		삼스의 四十二週忌
	3.15			反動과 進取의 抗爭
	3.18	사	설	小作團體 運動의 發達傾向
	3.24~26	"		朝鮮農民運動의 政治的傾向
	3.28	"		農民運動의 方向轉換期
	4.1	"		小作權移動問題
	4.2	"		智島小作爭議에 對하야
	4.8	"		民衆의 意義
	4.14	"		平壤洋機工罷業에 대하야
	4.21	"		合法非合法과 社會運動
	4.26~27	"		小作人運動의 危機
	5.7	"		○風期의 社會運動—좌경이나 우경이나—
	5.12	"		所謂 思想轉換及善導問題
	5.15	"		各地의 小作爭議에 對하야
	5.19~20	"		트로츠키氏와 勞農露西亞
	5.27~29	金	俊 淵	赤露의 五月祭
	5.30~31	사	설	國際勞動運動의 史的發達
	6.14~29	金	俊 淵	勞農露西亞의 現狀
	6.16	사	설	農村에 表現되는 階級的 鬭爭
	6.28~7.25			革命時代
	7.4			東方民族解放
	7.8	사	설	레닌그라드와 스탈불
	7.13	"		勞動者敎育運動의 一曙光
	7.13~17	"		社會主義와 宗教問題
	7.27	"		확대되는 英國의 盟罷
	7.30			產業無政府主義
	8.1~2	朴	英 熙	文壇의 鬭爭의 價値

1925	8.26	사 설	京城洋襪製造組合의 奮起
	9.6	"	國際青年運動
	9.8	"	朝鮮과 露國과의 政治的 關係
	12.9~10	"	부산인쇄직공罷業問題
	12.18	"	中國動亂과 赤化問題
1926	12.25~26	中西伊之助	民族思想의 樹立
	1.5	高津正道	日鮮無產階級提携의 一前提
	1.6	下熙瑢	合同을 通하여 統一戰線으로
	1.9	사 설	朝鮮人과 産業運動
	1.16	"	農民運動의 一方針
	2.3~10	金俊淵	露西亞農民政策의 새問題
	2.7	사 설	中國의 共產主義 對抗運動
	2.12~26	金俊淵	스탈린의 레닌及 레닌主義論
	3.4~16		
	3.20~31		
	2.24	사 설	左翼聯盟을 完成하기까지
	3.22	"	世界勞動運動의 協同
	3.25	"	惡化된 木浦製油工罷業問題
	4.14	"	社會運動과 民族運動과의 相關
	5.1	"	메이데이
	5.7	"	日本勞動階級과 英國總同盟罷業
	5.9		京郷에 兩罷業
	5.12	사 설	奇怪한 罷業論—英國宗教家의 誤想
	5.14	"	英國總同盟罷業告終
	5.18	"	日本勞動組合聯合運動
	5.27	"	楸子島漁業組合問題
	6.6	"	朝鮮의 農民問題
	6.9	"	動搖되는 朝鮮의 社會—「不穩文書」事件
	6.14	"	階級意識과 民族意識
	6.18		赤金과 赤書
	6.19	사 설	國家・民族・階級
	7.1~3	D V G 生	中國農民과 國民黨
	7.2		赤露의 罷業後援金問題
	7.10~16		中國無產階級 政治運動의 現狀
	7.20		濱松勞動爭議
	7.25		勞動權示威
	7.31		日本勞農黨의 態度

1926	8. 1			勞農露西亞
	8. 28~29,	사	설	朝鮮人 産業運動의 一方策
	8. 31	"		物産將勳의 新形勢
	11. 3	"		日本勞動農民黨解散說
	12. 2	"		朝鮮과 農民問題
	12. 8	"		日本無產階級의 三政黨
	12. 23	"		勞農聯邦 共產黨의 내분
	12. 26	"		現代와 人道主義
1927	1. 2, 4, 5, 7	燕京學人		轉換期の 臨한 朝鮮社會運動概觀
	1. 2	朴英熙		기성문학의 自然性和 階級文學의 必然性
	1. 4, 5, 8, 9, "	염상섭		民族社會運動의 唯心的 一考察
	1. 4, 6	安光泉		朝鮮社會運動의 意識上の 진동
	1. 5	사설		轉換期の 朝鮮
	1. 6~9	朴春宇		赤露共產黨의 分糾에 對하여
	1. 13			黃州興業組合
	1. 15	사설		民族聯合會문제
	1. 23			民族左翼戰線
	2. 9	사설		民族左翼戰線의 意義 및 使命
	2. 24, 26~28	辛一星		帝國主義時代의 民族運動의 進化
	3. 3, 5, 7~11			
	3. 21	사설		現實鬭爭의 第一聲
	3. 23~28			모든 피압박 민족과 모든 피압박 계급에게
	4. 2	사설		衡平社大會
	4. 3	"		朝鮮共產黨事件
	4. 11	"		革命의 突進性和 反動性 —中國現狀에 鑑하여—
	4. 19	"		좌익과 頓挫의 形勢—中國革命의 一不幸—
	4. 19			嗚呼陳獨秀氏—혁명의 五生, 불우의 최후—
	5. 1	사설		메이데이
	5. 13~15	柳子明		赤色の 悲痛 —四月十日 以後事實—
	5. 13	사설		中國革命의 特性—스탈린氏의 理論에 鑑하여—
	5. 15	"		좌익파의 정치투쟁 —中國革命의 特性—
	5. 17	"		國農沼爭議와 舍音制度撤廢
	5. 20~25	朴元熙		帝國主義時代의 民族運動과 社會運動
	6. 23~27	梁明		中國國民黨 左右分裂의 眞意
	7. 14~15	사설		英露係의 內面—帝國共產의 兩前衛戰

1927	8. 21	사	설	靑年運動의 方向轉換
	8. 24~27			대담무적한 공산당의 활동결과 一鬼神도 莫測할 暗號使用
	9. 12	사	설	社會改良運動의 過種의 價値
	9. 14	"		個人과 結社 共產黨事件 公判 開延에 臨 하야
	9. 15			共產公判問題
	9. 19	사	설	다시 共產黨裁判에 對하야
	9. 29			共產黨의 대두
	10. 13	布 施 長 浩		共產黨事件은 언제나 決審될가
	10. 21			勞農革命기념
	11. 16	사	설	思想取締에 對하야
	11. 19	"		收穫期와 小作爭議
	11. 20	"		忌避의 影響—조선공산당 사건을 기피한 데에 대해
	11. 22			共產黨 分裂과 農露政情의 內容 一레닌 折去하기 前부터 트지兩氏의 放逐까지—
	11. 20, 22, 23, 24	林	和	美術領域에 在한 主體理論의 確立
	11. 24			自作農創設계획
	12. 5, 7, 11, 12	姜 鐵 丸		當面の 政治行動
	12. 13, 14, 18	H S 生		轉換의 再吟味—新中間派理論의 政體를 暴露한
1928	1. 1	사	설	步步前進의 新一年. 鬭爭의 結束의 途程에
	1. 1	李 晟 煥		朝鮮農民運動의 政勢
	1. 3~4	權 泰 錫		朝鮮社會運動概觀
	1. 1~8	朴 英 熙		文藝運動의 과거와 장래 一전투적 문예 운동자는 자체의 운동을
	1. 14	사	설	日本無產政黨合同의 傾向
	1. 16	"		共產黨事件 決審을 보고서
	1. 12, 17	張 日 星		인식착관자의 당면 諸문제 비판 一GH 生の 無智를 嘲한—
	1. 1, 22, 25	金 萬 圭		全民族的 單一黨 組織과 임무
	1. 26~30	崔 益 翰		朝鮮社會運動의 빛
	2. 8, 12, 13			
	2. 3, 7, 12, 14, 16, 19	崔 益 煥		朝鮮運動의 全體—重要原理及 各問題—
	2. 29	사	설	最近의 思想彈壓傾向

1928	5. 1	사 설	國際勞動祭日
	9. 26	一 記 者	露國의 最近政界
	10. 10, 13, 15, 17	어이켄야르가	中國革命基本問題
	11. 6		日本無產政黨의 現狀과 今後進展
	11. 26	사 설	小作權確立의 必要
	12. 14	"	左右兩派의 策略
	12. 27	"	日本無產政黨의 分合
1929	1. 1, 2, 5, 6	襄 成 龍	朝鮮社會運動小史
	1. 23	사 설	元山油工罷業擴大
	2. 2	"	朝鮮의 社會政策에 對하야
	2. 16	"	組織과 團結
	2. 19	"	日本大衆黨의 分裂
	2. 25	"	爭議一貫의 不二農場
	3. 12	"	小作人의 自衛策
	4. 18	"	協同組合運動에 對하야
	6. 29		격증하는 思想犯
	9. 23~26, 29	한 별	「부하린」의 沒落
	10. 3	사 설	新勞農黨의 政策
	10. 6~10, 12, 13, 15, 16, 18, 20, 22, 25	李 如 星	昨今日本의 無產政黨運動
1930	1. 13	사 설	朝鮮紡織의 大罷業
	1. 21, 22	韓 ○ 振	個人主義와 社會主義의 理想
	1. 24	사 설	罷業과 饑饉
	2. 11	"	大邱米工解雇
	4. 5~13, 15, 17, 18	宋 駝 麟	朝鮮「푸로」藝盟과 「푸로」藝術運動 第一線인가 第三線인가?
	4. 6	사 설	頻發하는 勞動爭議
	4. 12~18	金 享 俊譯	「해－젠」과 변증법적 唯物論
	5. 8	사 설	격증하는 소작쟁의
	9. 4	"	勞農黨內의 解消運動
	10. 26		勞農黨內의 內分
1931	11. 6	사 설	必要한 農民의 소리
	1. 3, 5~10	李 貞 根	日本無產運動의 發展
	1. 13	사 설	利權은 資本에게
	1. 19	사 설	小作爭議격증
	2. 27	"	격증된 小作爭議

1931	3. 26	사	설	왜 問題가 만흐나 水利組合反對運動
	4. 4	"	"	杜選한 朝鮮思想關係法規
	5. 1~3. 5	野	牛	메—메—의 歷史的意義
	5. 6	사	설	水利組合과 農民
	5. 8	"	"	다시 水利組合에 對하여
	5. 11	"	"	宇治火藥의 勞動爭議
	5. 23	"	"	黃海水組廢止運動
	7. 7	"	"	民衆의 여론을 전개케 하라!
	7. 28	陳	尙 珠	맑스主義 연애관 연애의 계급성문제—
	8. 29	사	설	低少한 勞動條件
	9. 2	"	"	朝鮮知識層의 危機
1932	11. 12	"	"	京江海產物業者의 奪起
	1. 3	金	明 植	國際社會運動의 趨嚮
	1. 1, 2, 5, 10,	林	和	당면정세의特質과 藝術運動의 一般的 方
	13, 21			向
	1. 13	"	"	頻頻한 勞動爭議
	2. 20	"	"	朝鮮農村의 現狀
	3. 17	"	"	勞動小作爭議에 對하여
	3. 22	"	"	思想警察의 擴充
	3. 31	"	"	南北의 不安打開策의 如何
	4. 14	"	"	學生의 思想問題
	5. 5	"	"	思想改善과 社會의 改善
	7. 7	"	"	鯷油肥共産制를 廢止하라
	7. 17	"	"	소위 사상선도운동
	11. 25	一 步 生		露國革命巨頭 트로츠키氏의 流浪
	11. 25~29	惑 大 勲		노동문단의 기린아 막심·고리키研究
	12. 2	李 灌 鎔		恐慌期는 무엇이 잇슬가 —國際 社會黨과 계급적 본질과—
	12. 25	사	설	思想犯에 對한 方針
	12. 27~28	吳 三 峰		朝鮮運動의 전개